SILVER PHOTO
실버포토
EXHIBITION

단, 하나 뿐입니다.
지울 수도
지워지지 않는
사진을 찍고 싶기에
사진은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



순수한 사진,
사진가를 찾아서

청주사진아카이브도서관
이재복

2023년 한국 사진계는 어느 해 보다 전시가 많고, 특히 개인 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사진가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국제 사진제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사진가들의 집중력 있는 실험적 활동도 끊임이 없다. 청주 역시 사진 발표가 호황인데 "예술곳간", "사진공간 전하울" 등 사진 전문 갤러리가 생겨나며 80년대 조유성 작가가 운영했던 "영상화랑" 이후 40여년만에 사진 공간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휴관했던 청주 신미술관이 사진가에 의해 부활되며 사진이 미술의 불씨를 살리는 일도 만들었다. 더불어 지역 공공 전시 장소인 충북문화관, 한국공예관, 예술의전당, 청주문화원 등에서 거의 매주 사진 전시가 열리고 있다.

충북사진사를 처음 발견한 것은 1998년 집필된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북지부의 기록물을 통해서이다. 이 책을 통해 사진가들의 지난날의 역사를 볼 수 있었는데 협회와 동아리 등 기관과 단체 중심의 역사로 이 시대 중요한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책으로 묶인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사진과 사진가의 이야기가 상당수 소외되어 사진 콘텐츠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아쉬움이라 할 수 있다.

2022년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김운기 작가를 조명하며 충북사진사는 사진가 중심의 역사 전개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언젠가 생길 충북의 사진 축제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진가 발굴은 꼭 필요한 과제이다. 지역 외부의 시선에서 충북은 여전히 대표할 만한 사진가가 없는 사진의 불모지로 인식되곤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 여러 기획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날의 충북사진사는 외형적 형태를 강화하기 위해 상업, 취미 할 것 없이 사진이 사용된 거의 전 장르의 이야기를 포함시켜 사진사를 저술하였다. 다만 충북도 사진협회가 창립된지 50년이 되었고, 그간 많은 국내외 전시를 개최하며 얻은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작가 중심의 사진사를 만들어 볼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첫번째 충북의 사진가로 김운기 작가가 신문 기자로 출발해 예술가가 되었다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떤식으로 이어졌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1970년대 사진협회가 생겼고, 1980년대 이후 사진은 대중화되기 시작한다. 당시 사진 전문 기술서들이 출판되고, 특히 암실 기법에 대한 책과 전문 약품들이 보급되면서 작업실을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사진가의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사진 기술에 데이터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다 정밀한 작업이 가능했던 시대였다.

1980년대 당시 사진에 자부심이 넘치던 차세대 사진가들이 모여 1990년 실버포토가 창립했다. 당대 다른 클럽과 확실히 다른점으로 사진의 차별화를 위해 순수성을 강조했고, 지도자를 두지 않아 자율성을 담보했다. 학예회식 발표에서 벗어나 공통의 주제를 선정해 각자의 방법으로 연구하고, 시각으로 보여주는 획기적인 표현의 변화도 있었고, 무엇보다 기획을 강조해 사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시도했던 다양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회원 증진을 위해 애쓰기보다 사진의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 애썼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 회원을 단순 사진 애호가들로 구성한 것이 아닌 사진전공, 방송국, 신문사, 기획실, 상업사진, 교육자 등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형성했던 것으로 완성도 있는 전시와 출판물을 만들어 왔다. 이런 개성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운영하며 지구력도 함께 보여주었다. 실버포토 회원들은 1990년대 폭발적인 사진 대중화 시기에 맞추어 사진학과 교수, 평생교육원 강사, 동아리의 지도위원 등 사진 리더를 맡으며 여러 계층에 이론을 전파하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다.

이번 실버포토를 조명하며 현재까지 왕성하게 사진 활동을 하고 있는 문상욱, 이정호, 박광수 작가를 비롯 창립멤버로 일찍 생을 마감한 조영상 작가 4명의 당시 작품을 복원해 출판과 전시로 연구하고자 한다.

국가적 경제발전에 눈부신 활약에 비해 여전히 한국 그리고 충북은 문화와 예술에서 나아갈 여지들이 많다. 그럼에도 제도권 밖에서 묵묵히 소명을 가지고 활약해 준 4명의 사진가와 여러 당대 사진가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이번 기획에 뜻을 함께해 준 황희순, 심명희, 이경순 사진가의 사려 깊은 노력에도 감사드린다. 모두 충북을 대표하는 작가들로 드러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1990년 창립된 순수사진동아리
실버포토를 조명하며...

사진가 정인영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시간의 때가 묻고서야 비로소 정이 통한다. 사랑이 그렇고 사물도 그렇지만 정이 통하는 인연이란 더욱 시간이 흘러야 하기에 서로 이어지는 세월이 더욱 필요하다. 하물며 사진은 더욱 시간의 때가 끼어야 그 면모가 익어간다는 이상한 힘을 발휘하기에 사진의 시간 자체가 우선 정겨워 보이는지 모른다. 그 사진이 소위 작품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라 할 때 지나온 순수한 날들에 대한 그리움의 또다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생긴 것은 언젠가 모두 사라진다. 사라진 공간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 그 틈을 메우는 이것이 또 하나의 질서요. 순리이기에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에서 그 안타까움에 아쉬움이 있다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에 생각하게 된다. 그 날들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없고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타까움은 있지 않을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사라져간 실버포토가 지나간 먼 날의 한낱 이야기로 읽힐 수 있겠지만 아무리 사라지고 없는 오늘이라 해도 사라져 없어진 것을 지금에 되살려 보는 의미는 어떠한 면에서 뜻이 있다고 하겠다. 모르긴 해도 한때 진지하고 활달했던 실버포토의 진실된 그날들의 기억만은 절대 잊을 수 없다 하기에 요즘처럼 사진이 범람하는 시기에 생생한 그날들의 모습을 그대로 되살려 볼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사진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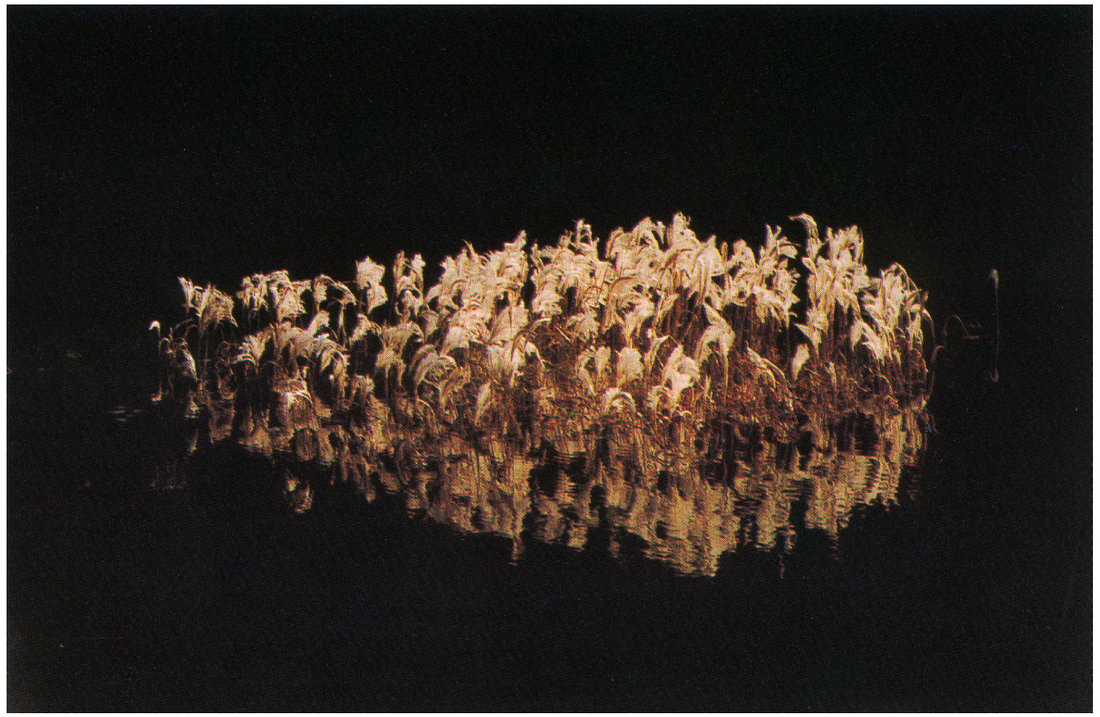
한때 남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모임이 아니라 내일의 의미있는 열정어린 모임이었던 실버포토의 거기에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오늘까지도 한편에서 시간의 때가 끼인 가운데에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실버포토는 그 시절 서로가 서로의 한 부분으로 얽히어 서로 보완하면서 사진의 독립성을 살리려고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썼던 회원들이 처음 시작의 생각대로 서로 주장하고 서로 어우러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참신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모임이었다.

새로운 경지를 열어 함께 끼우고 보태 열과 성을 다했던 어제의 실버포토를 다시 조명한다는 데에 크게 경의를 표한다. 어제를 되살려 오늘에 만남의 중요함은 사진에서 더함을 실감하면서....

조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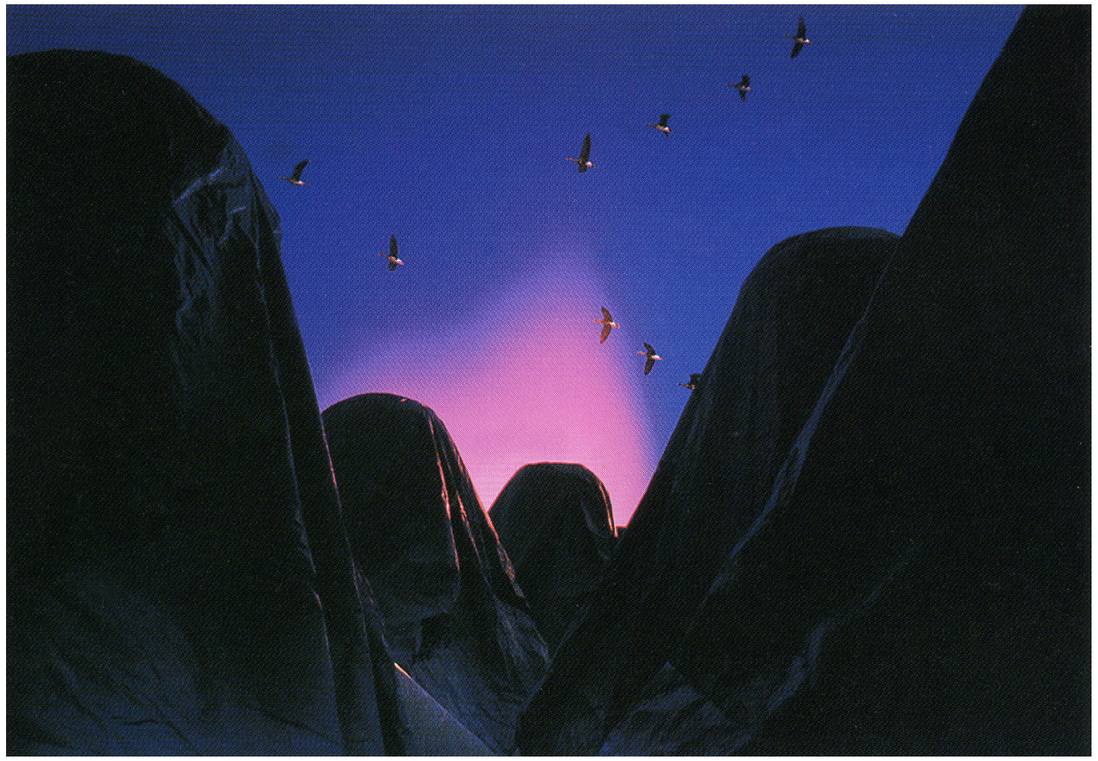
194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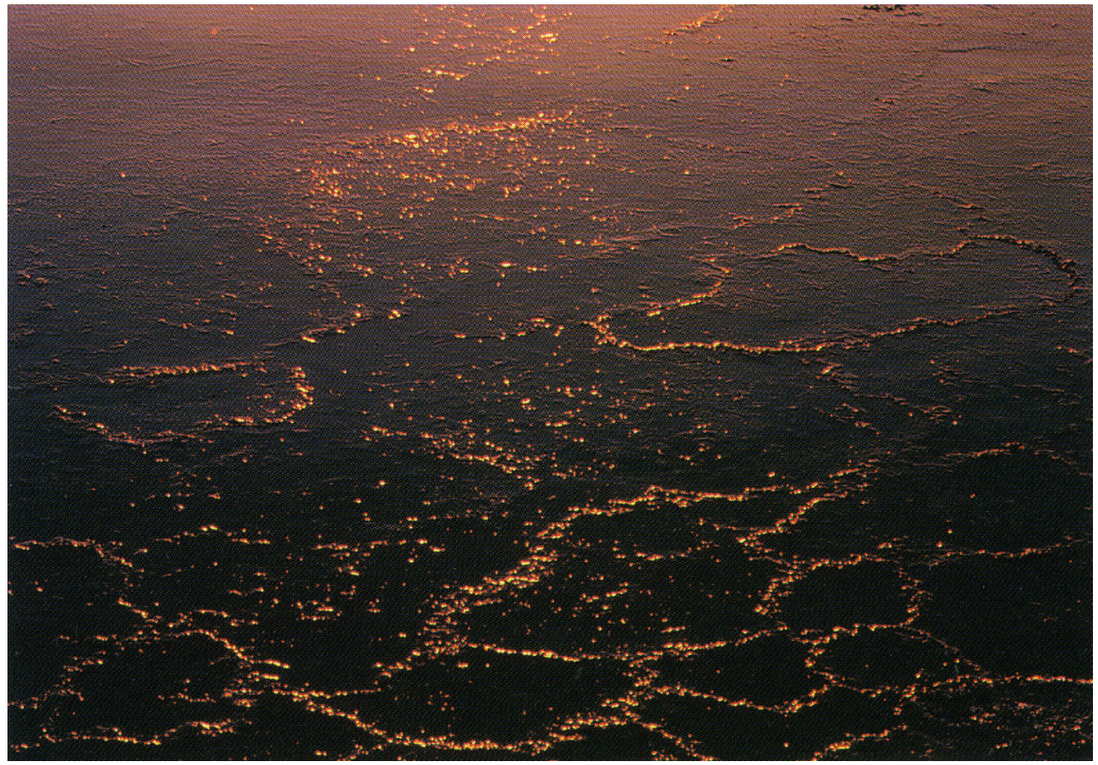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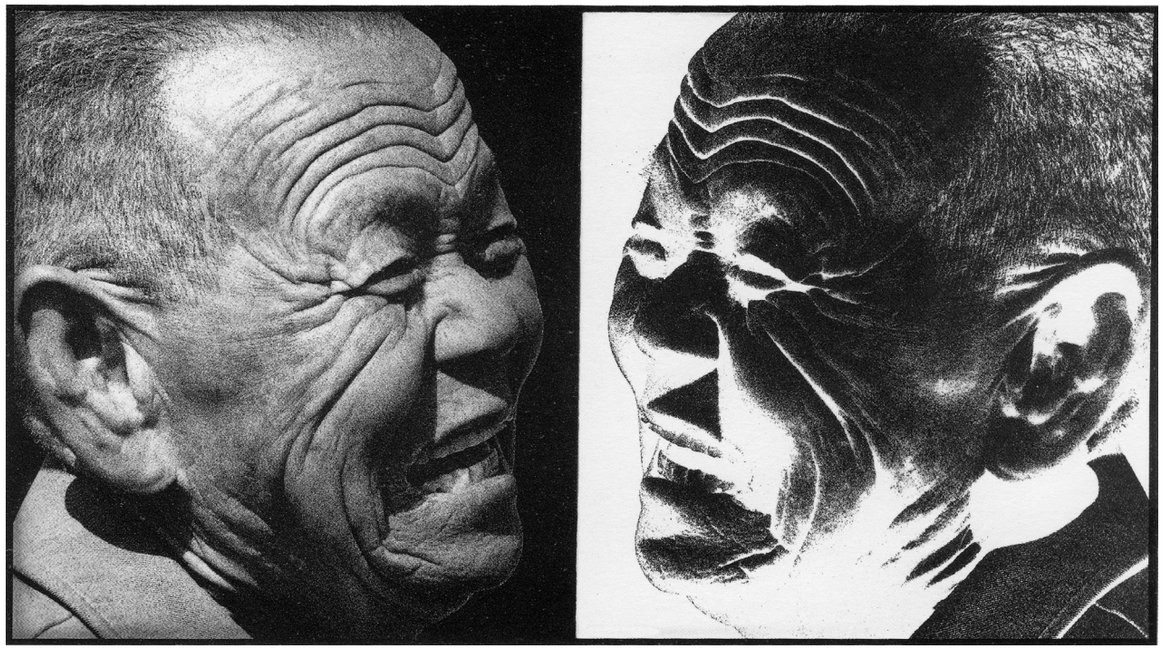






문상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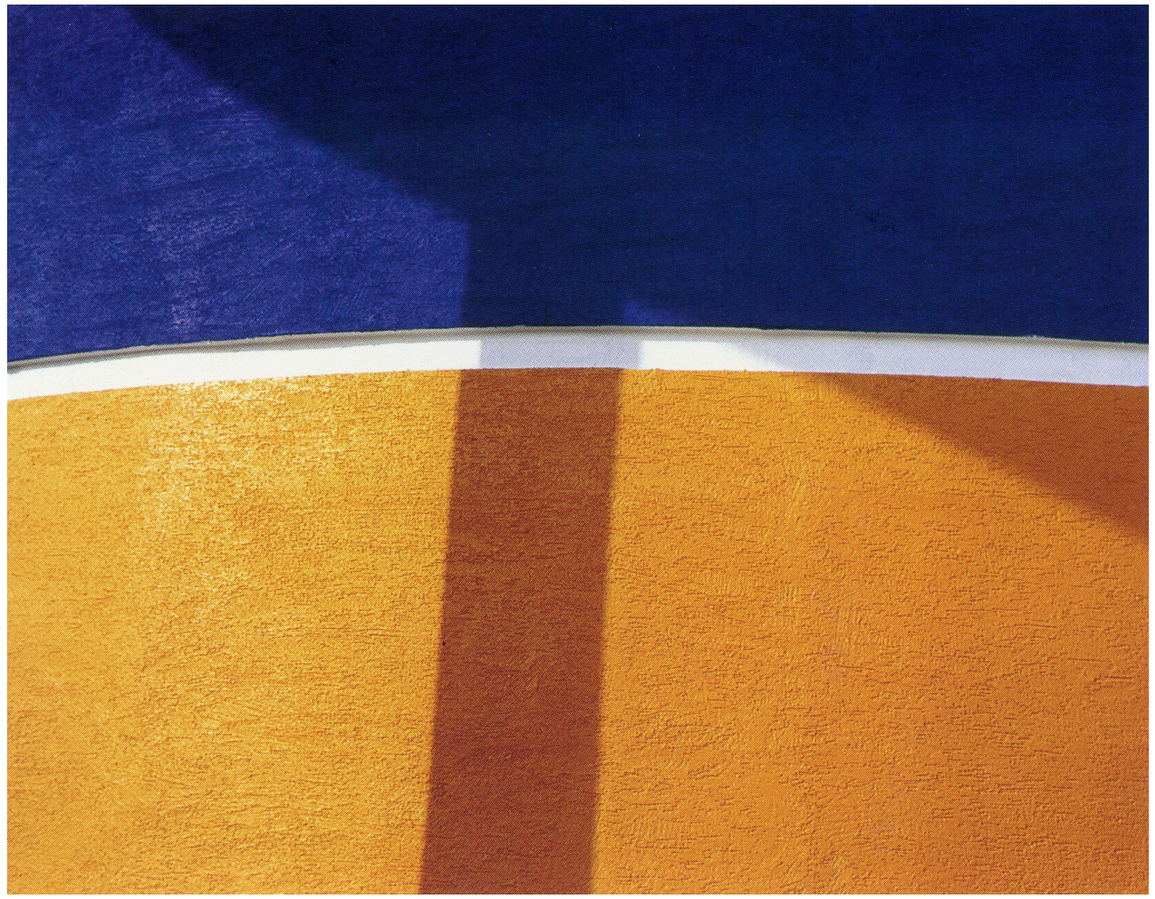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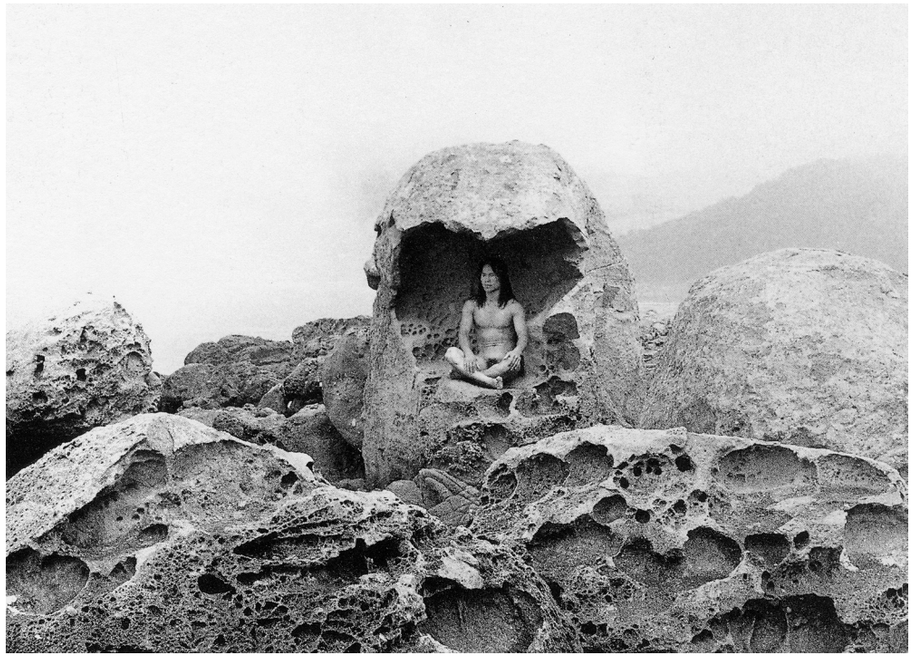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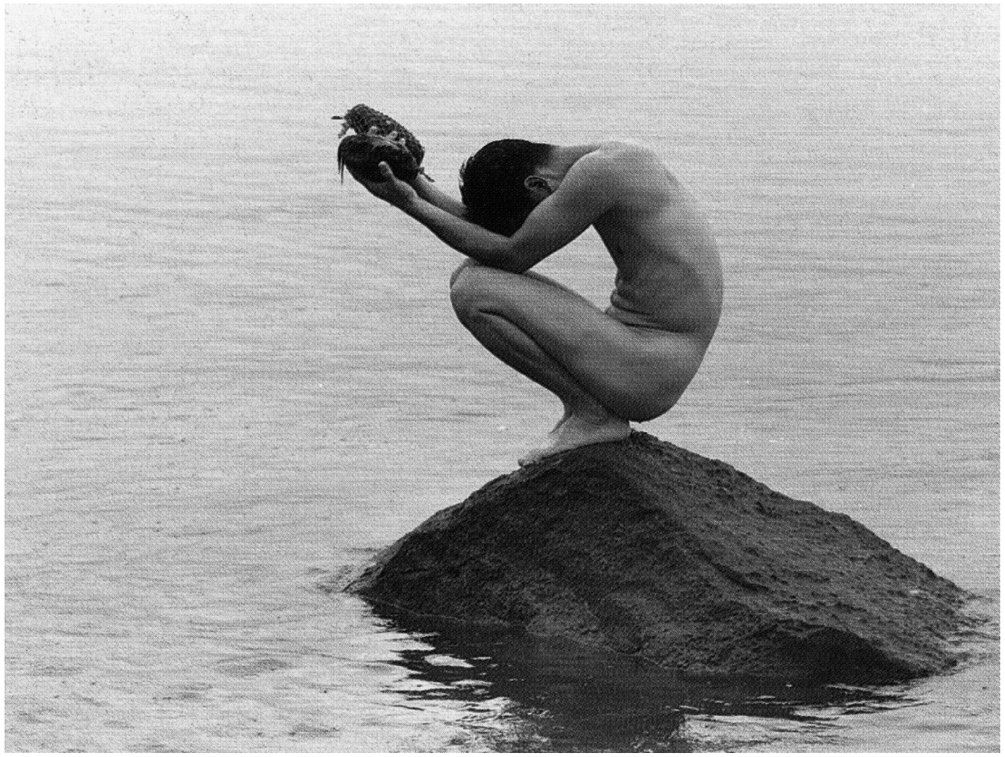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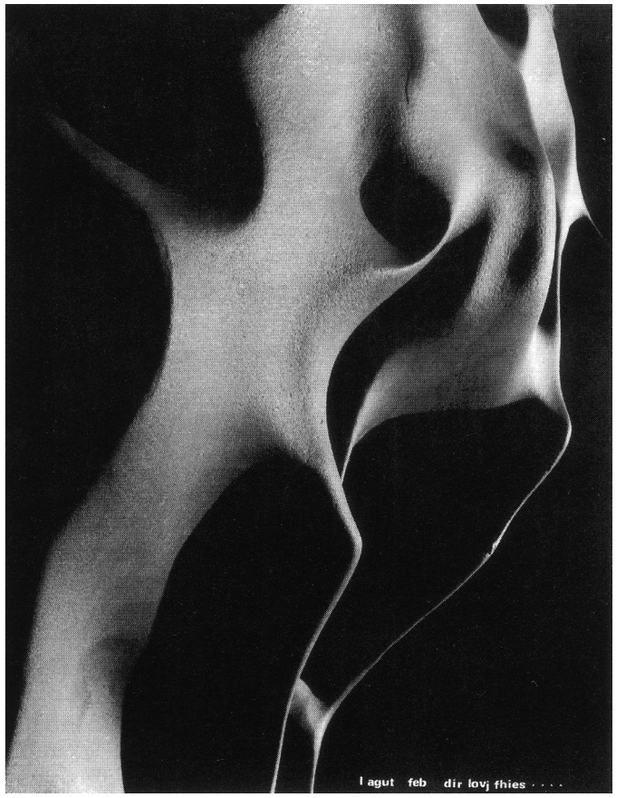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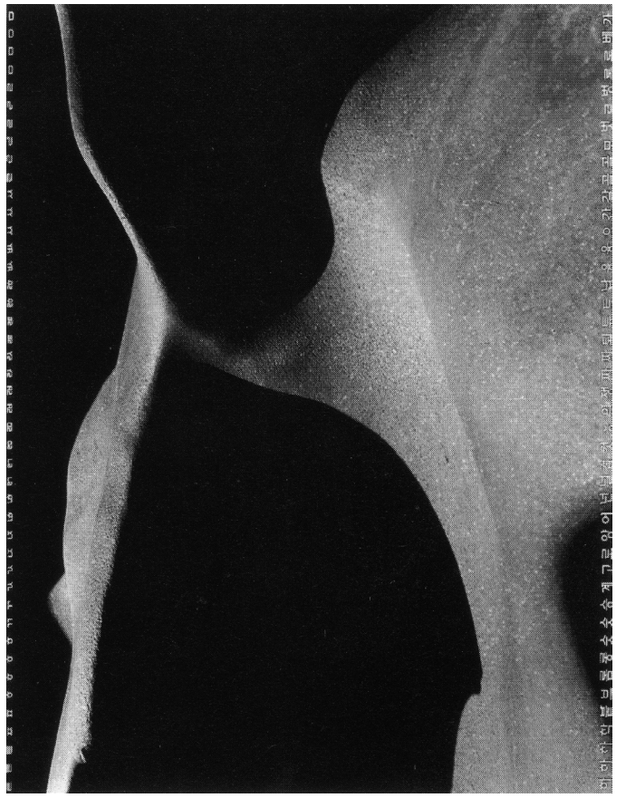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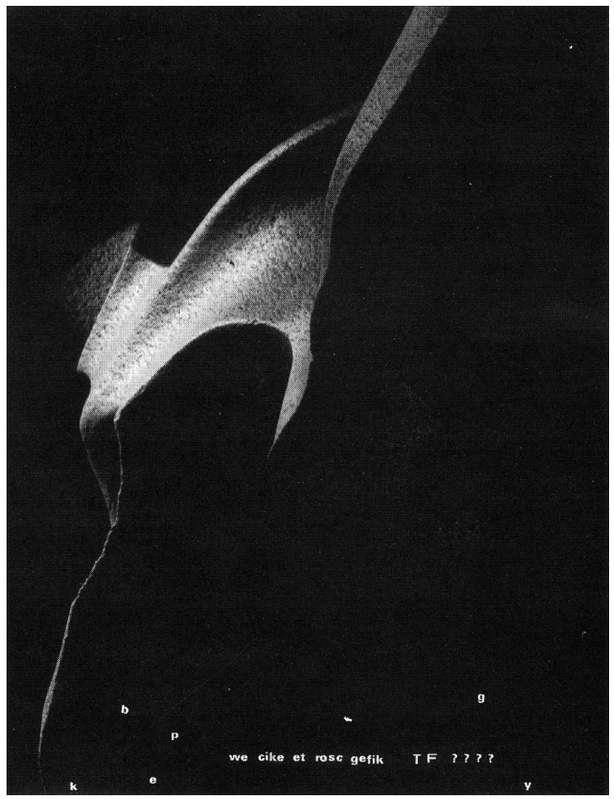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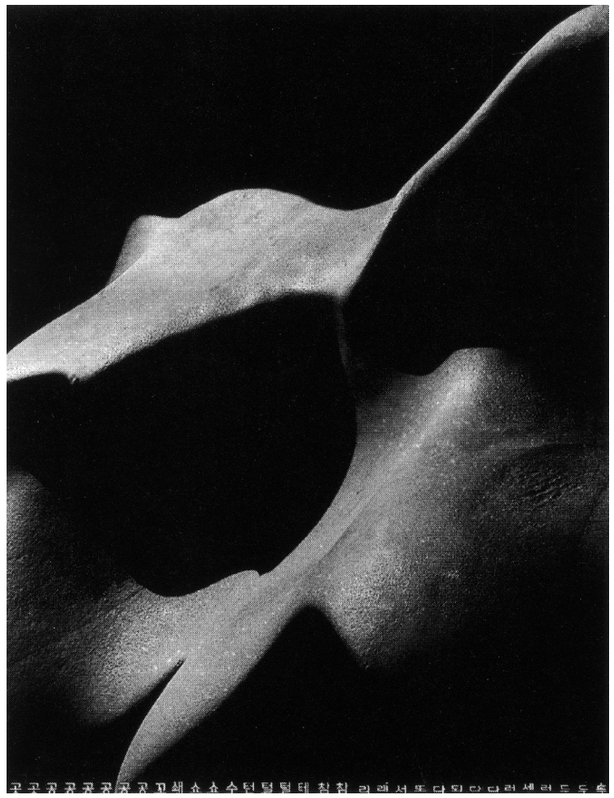





l agut feb dir lovj fhies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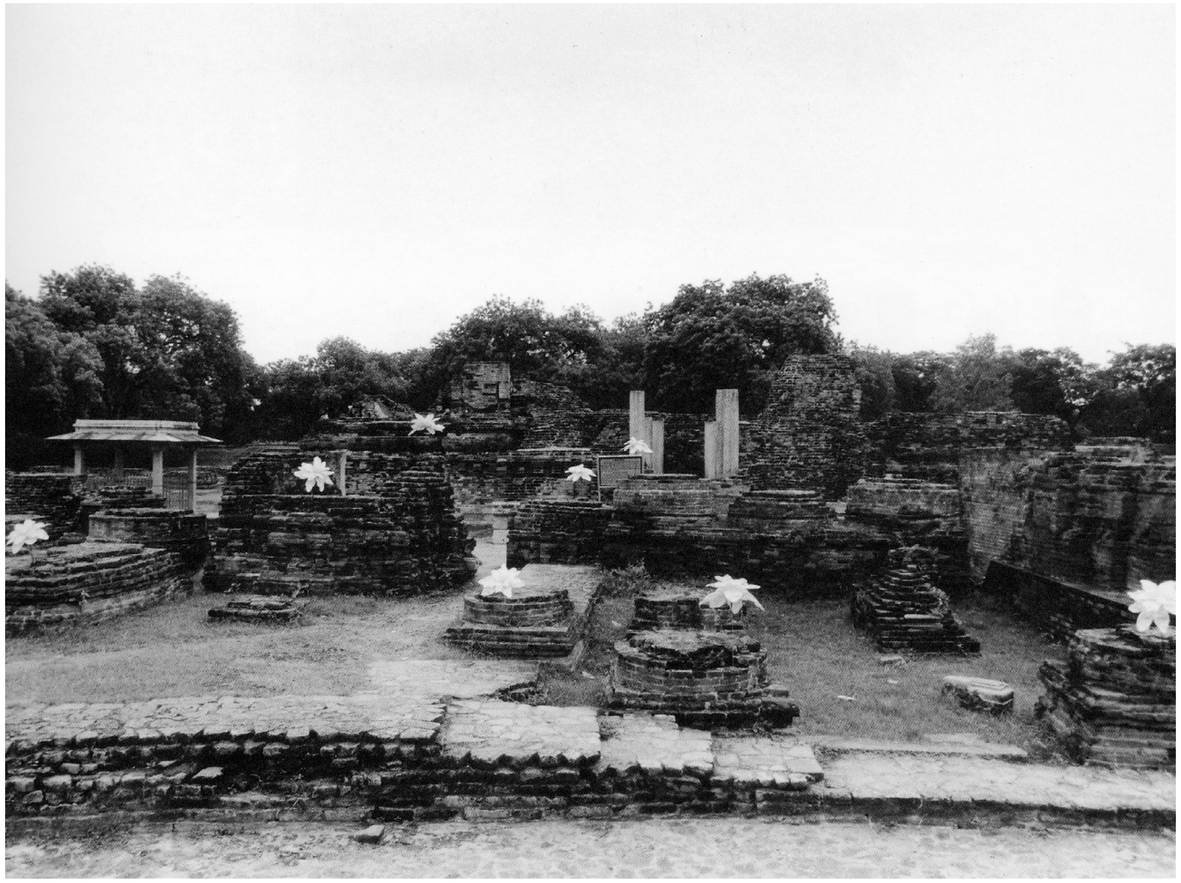



b
g
p
we cike et rosc gefik TF ????
k e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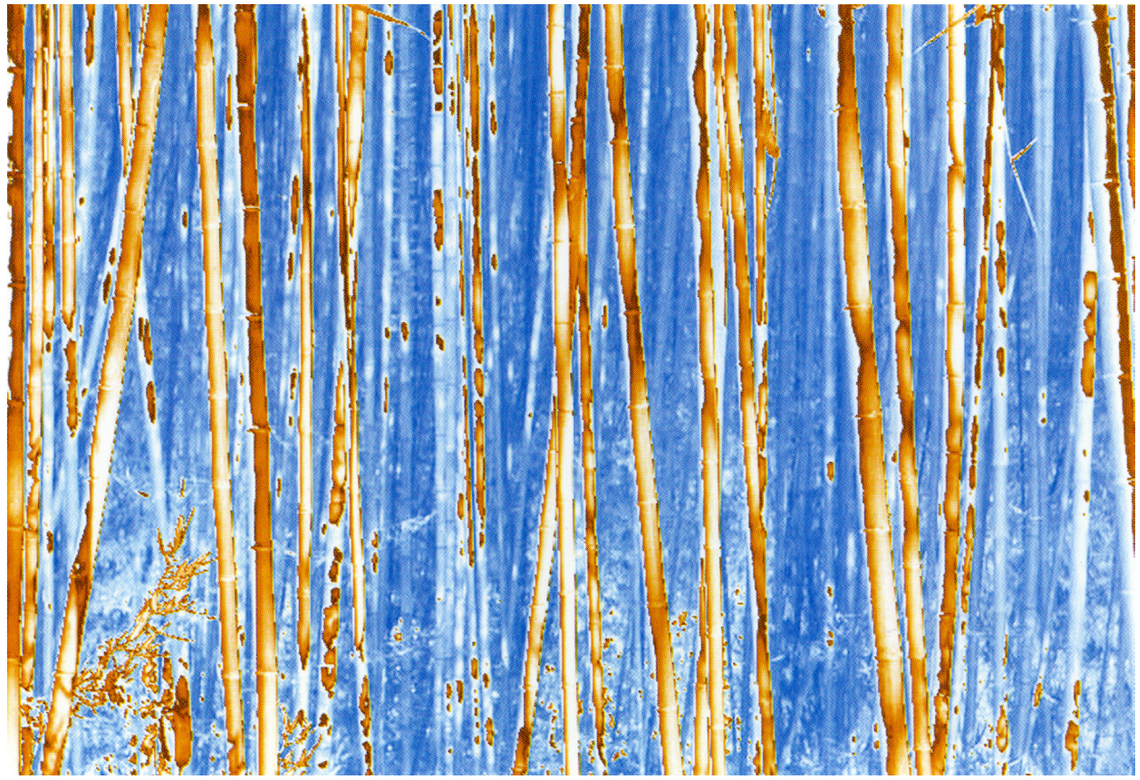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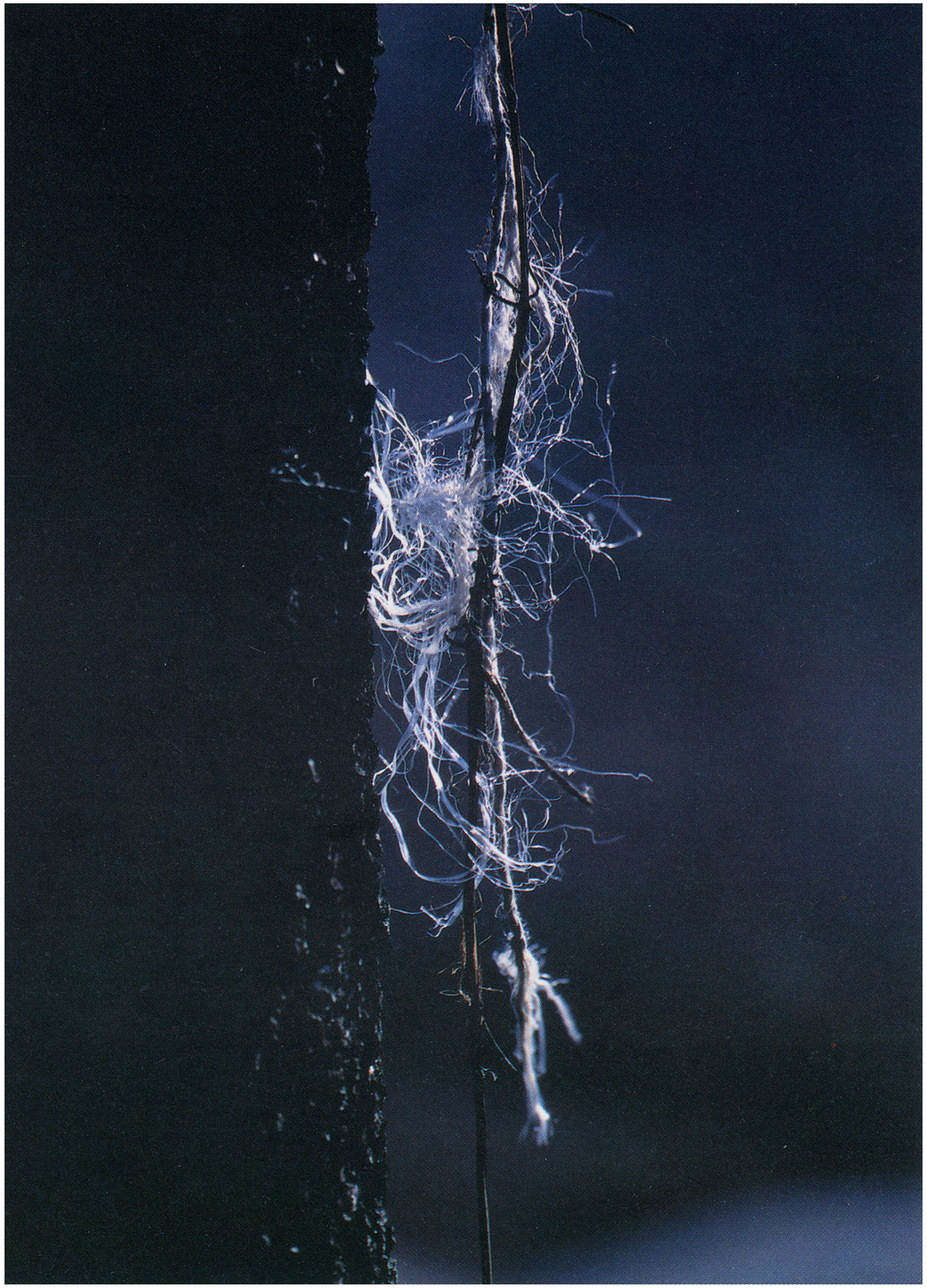






이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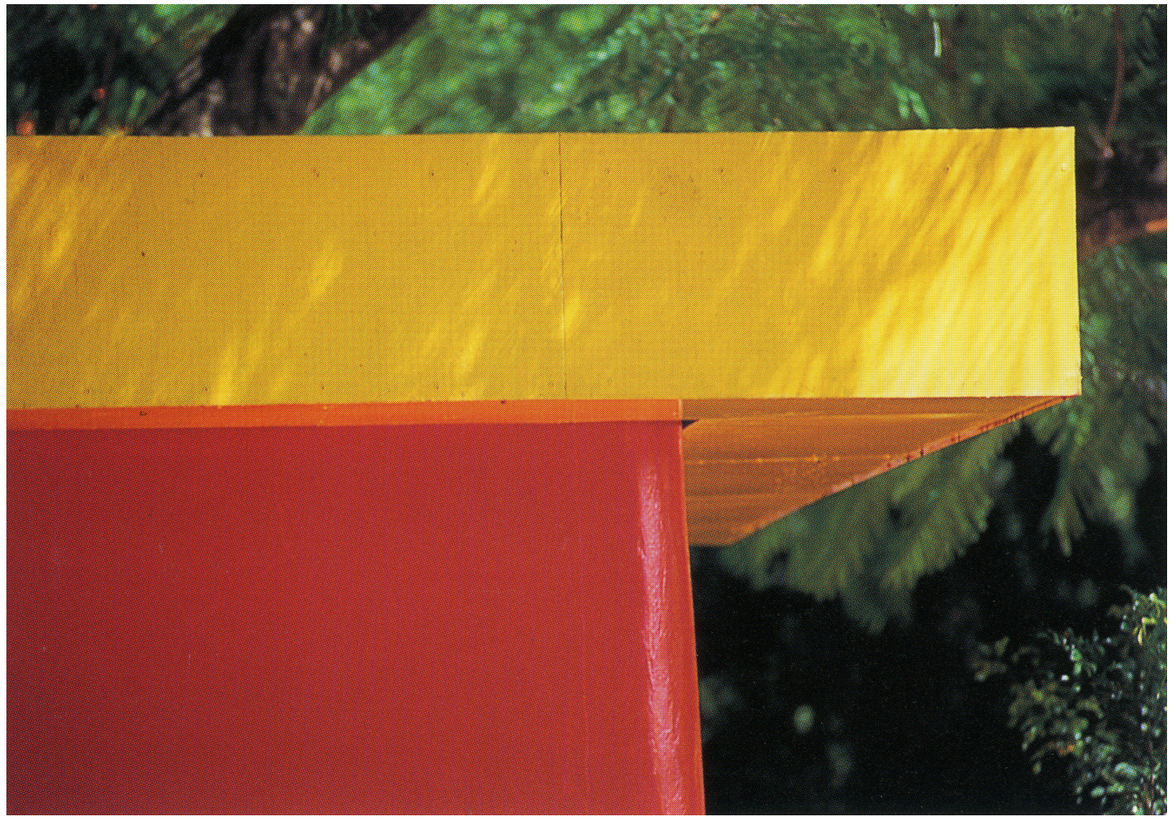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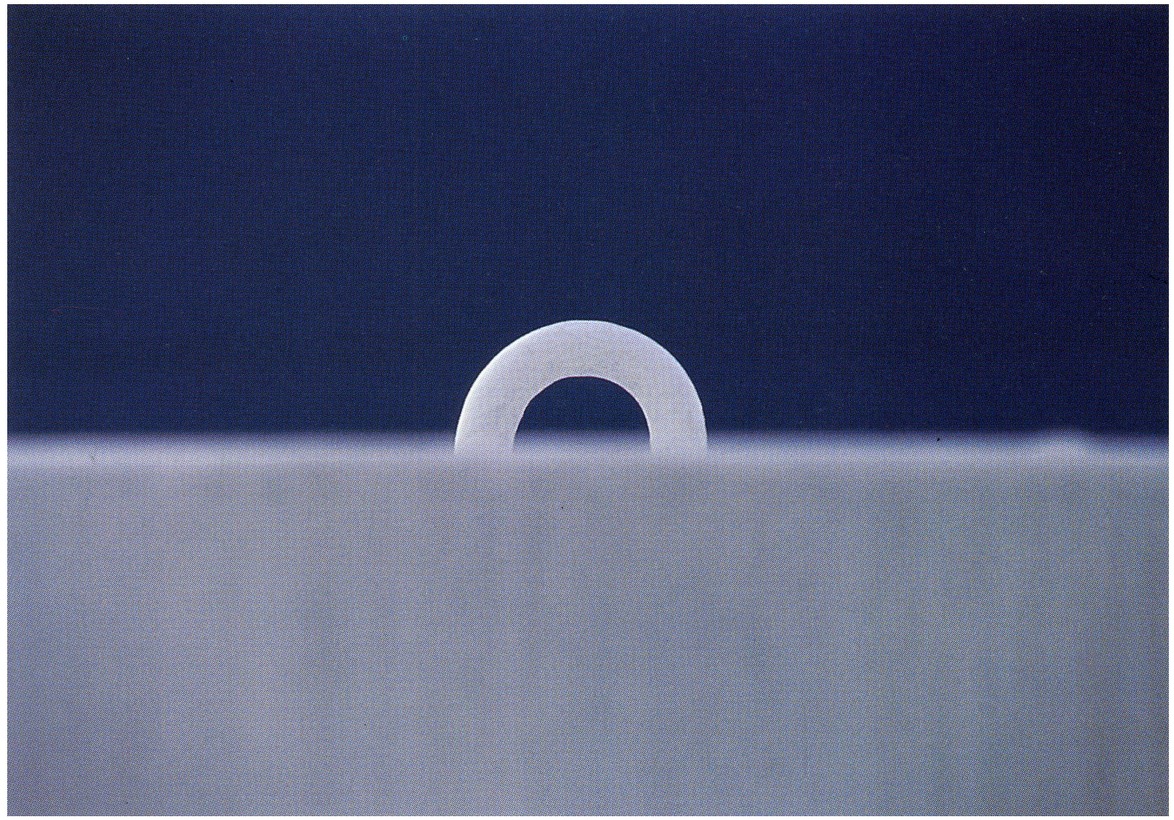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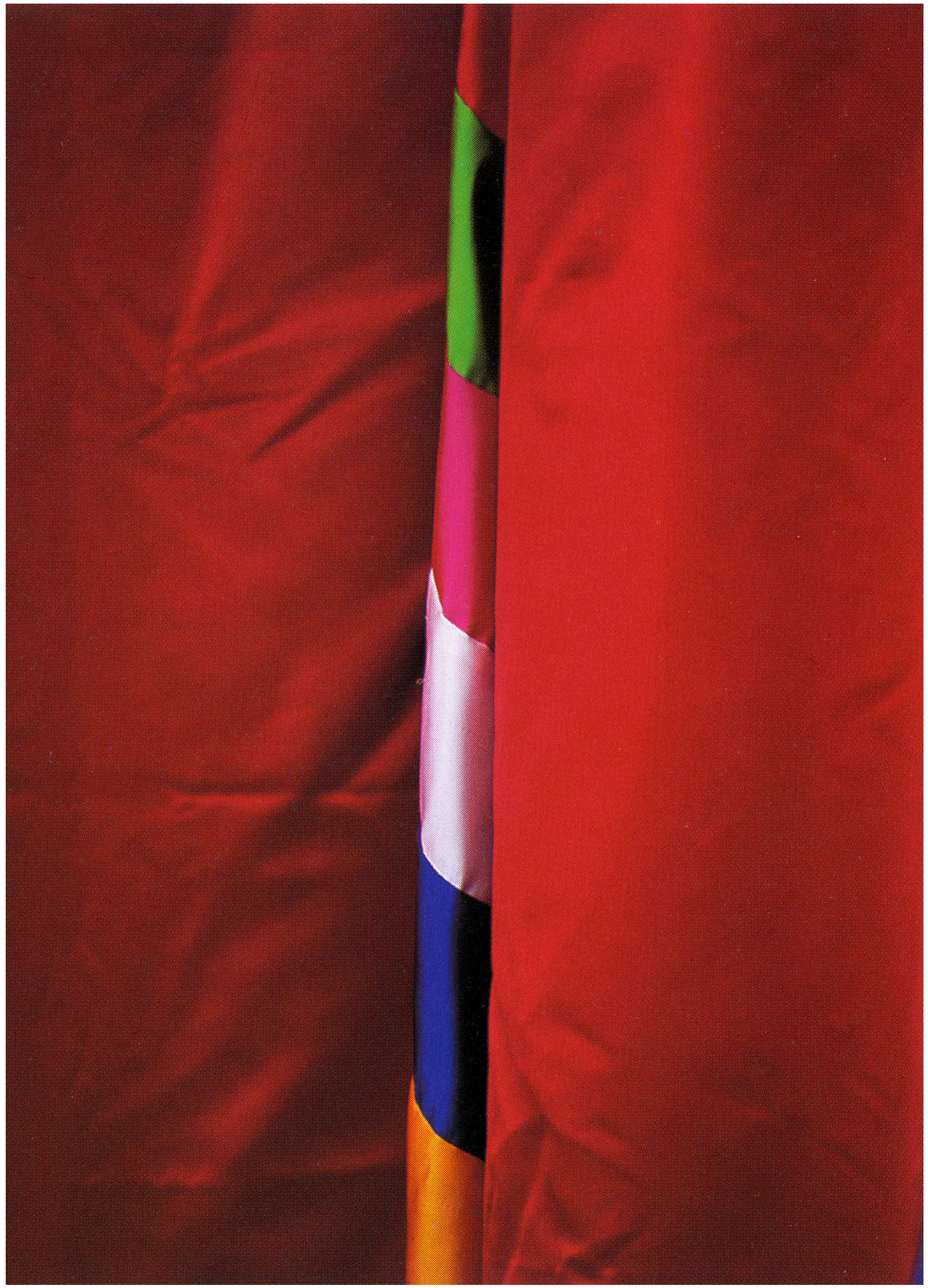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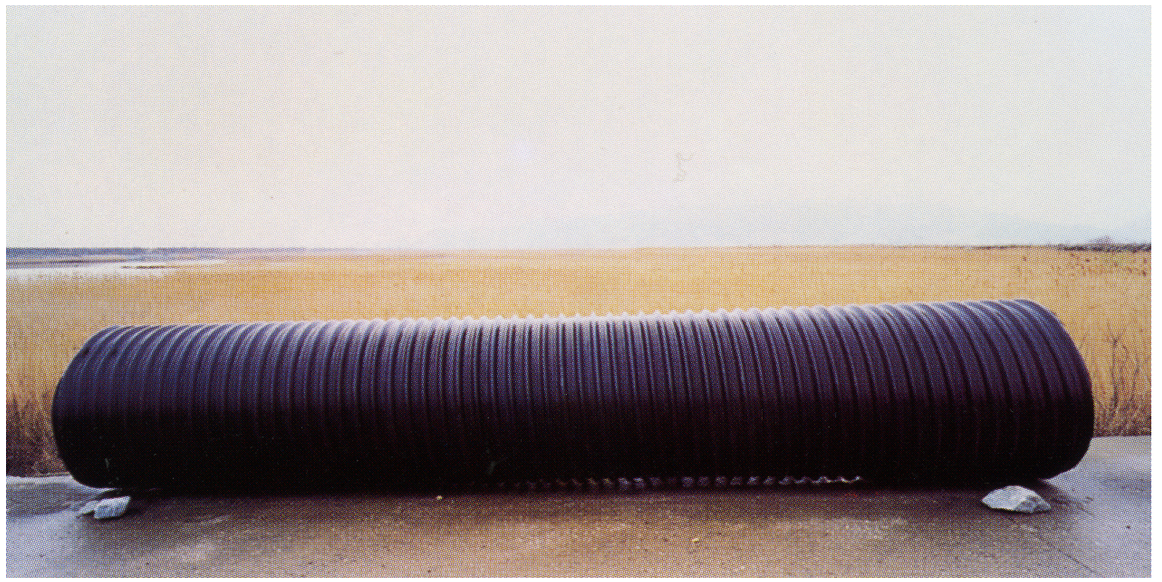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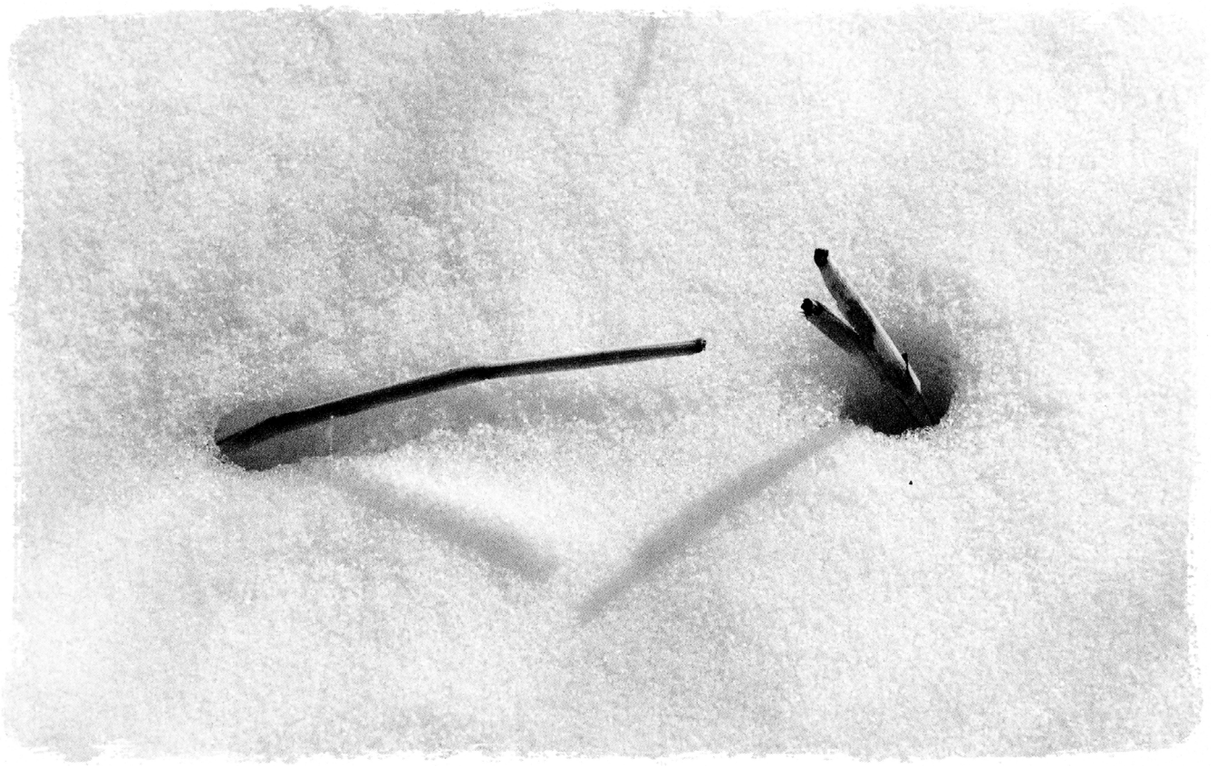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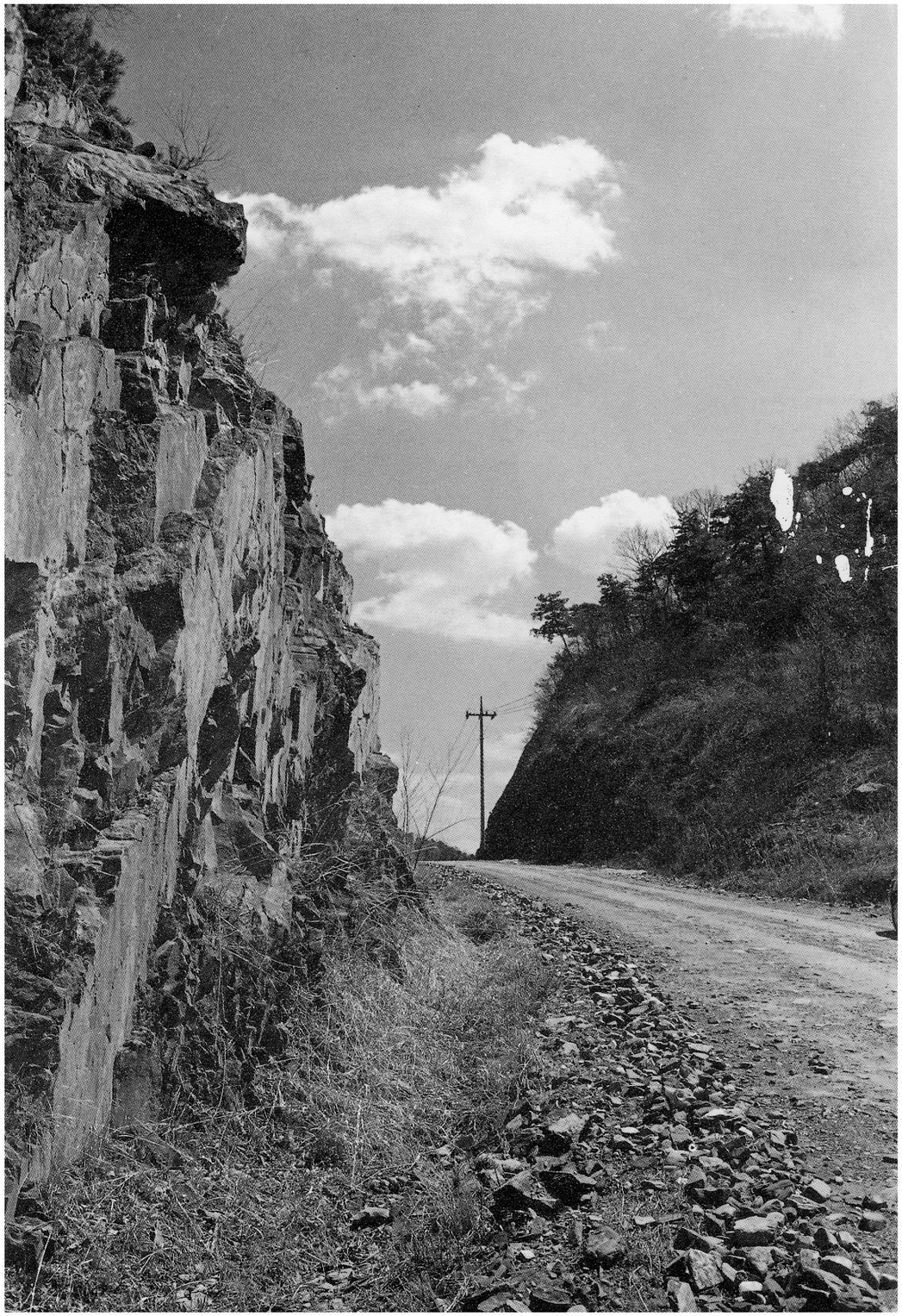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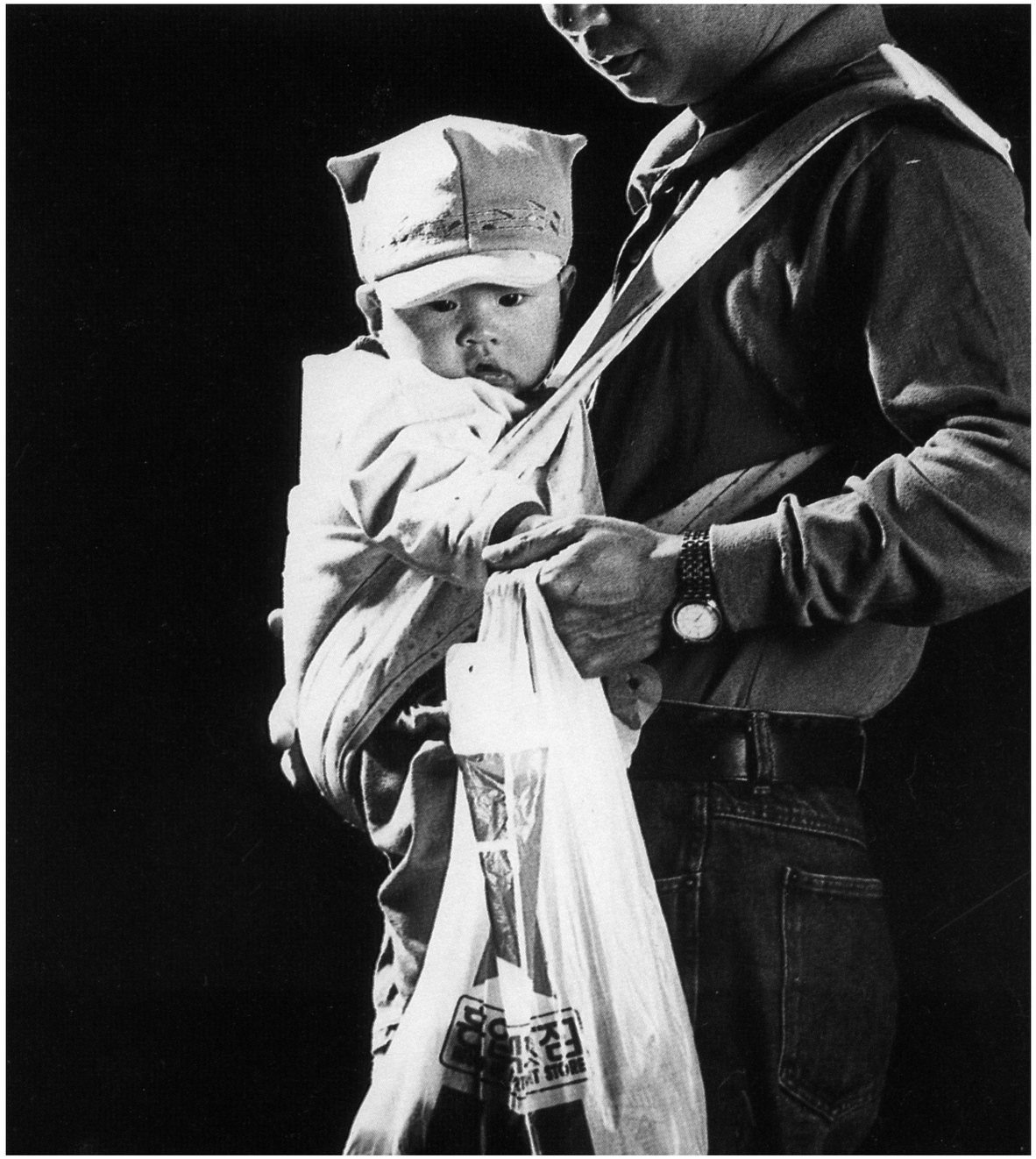
박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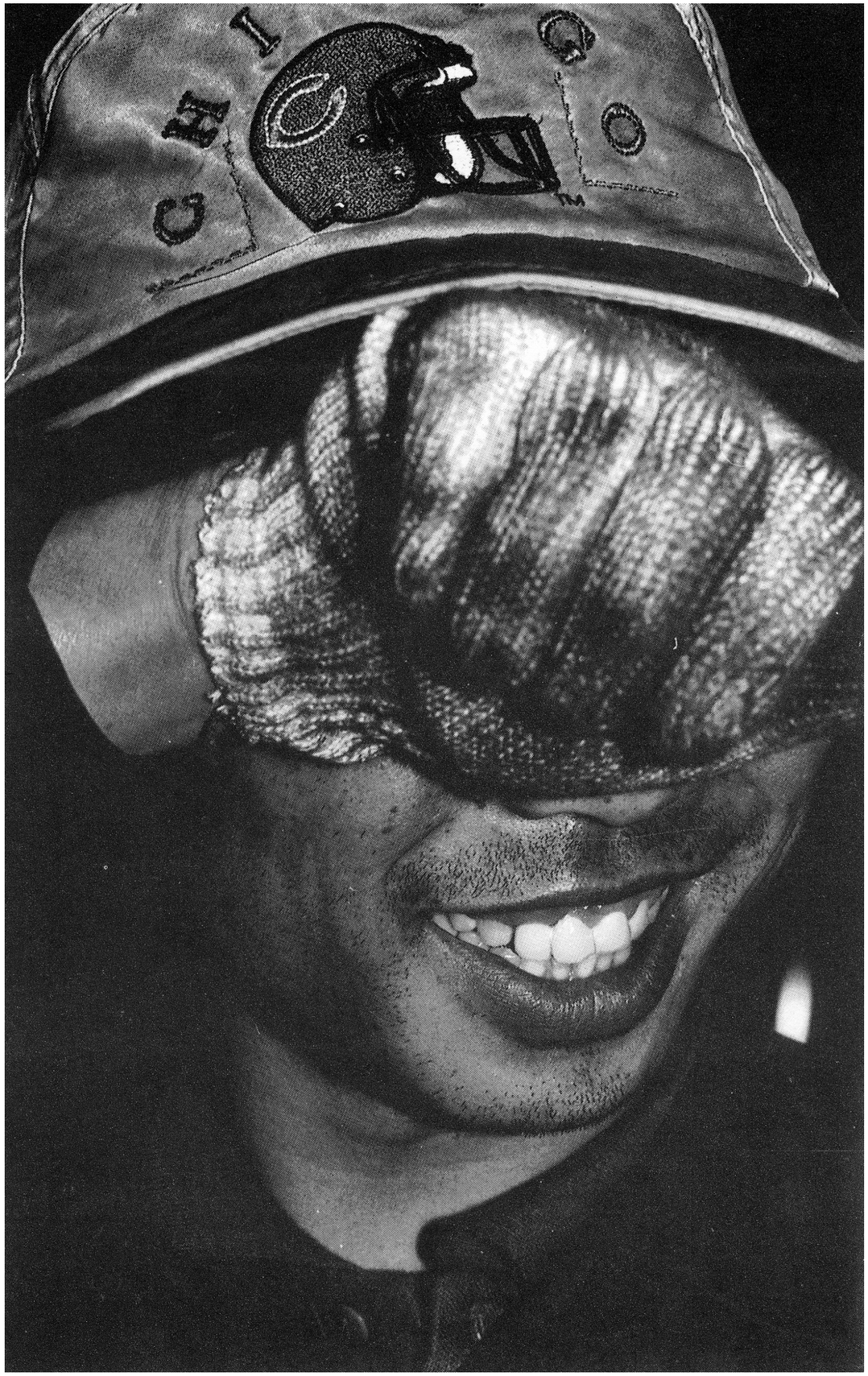
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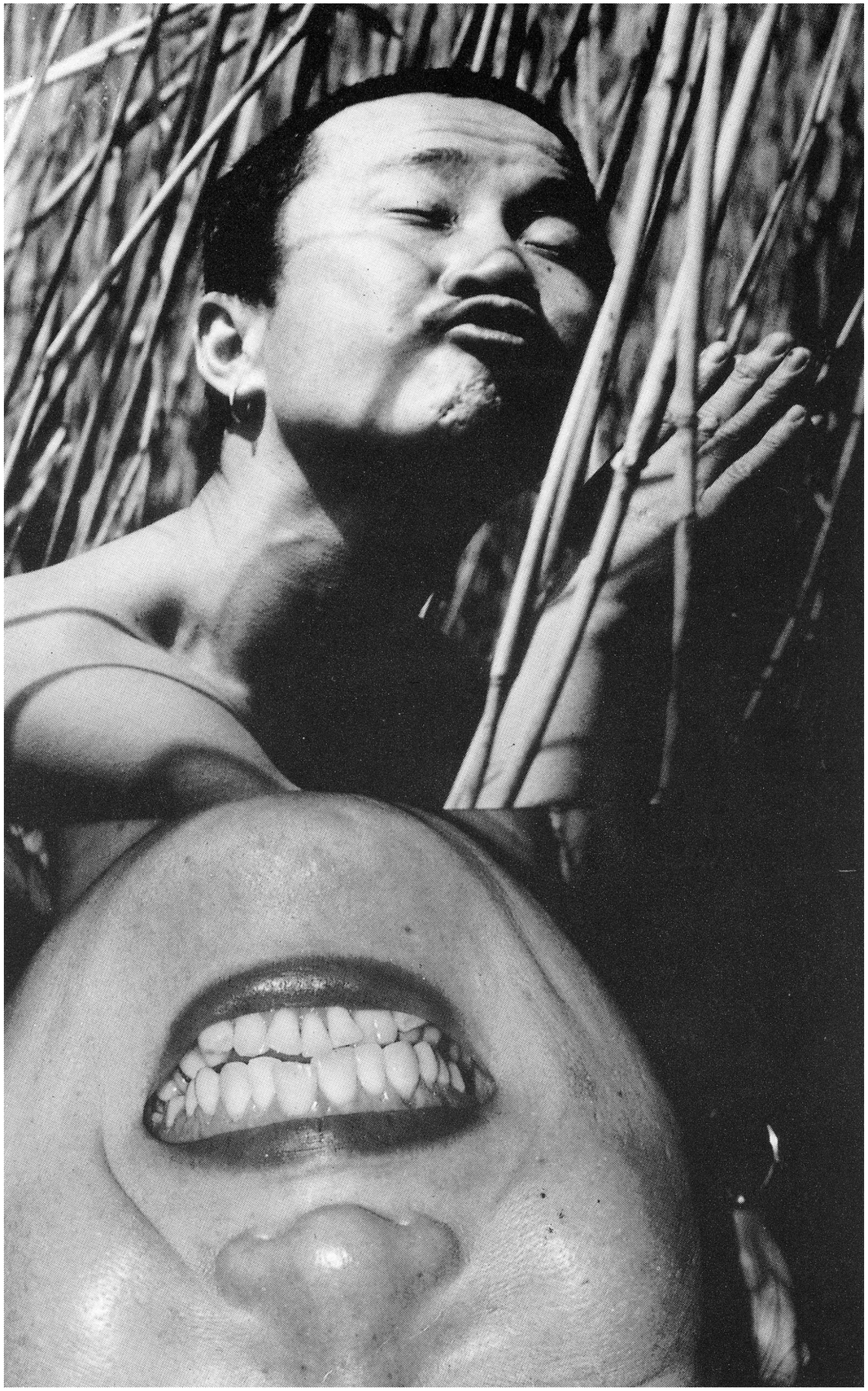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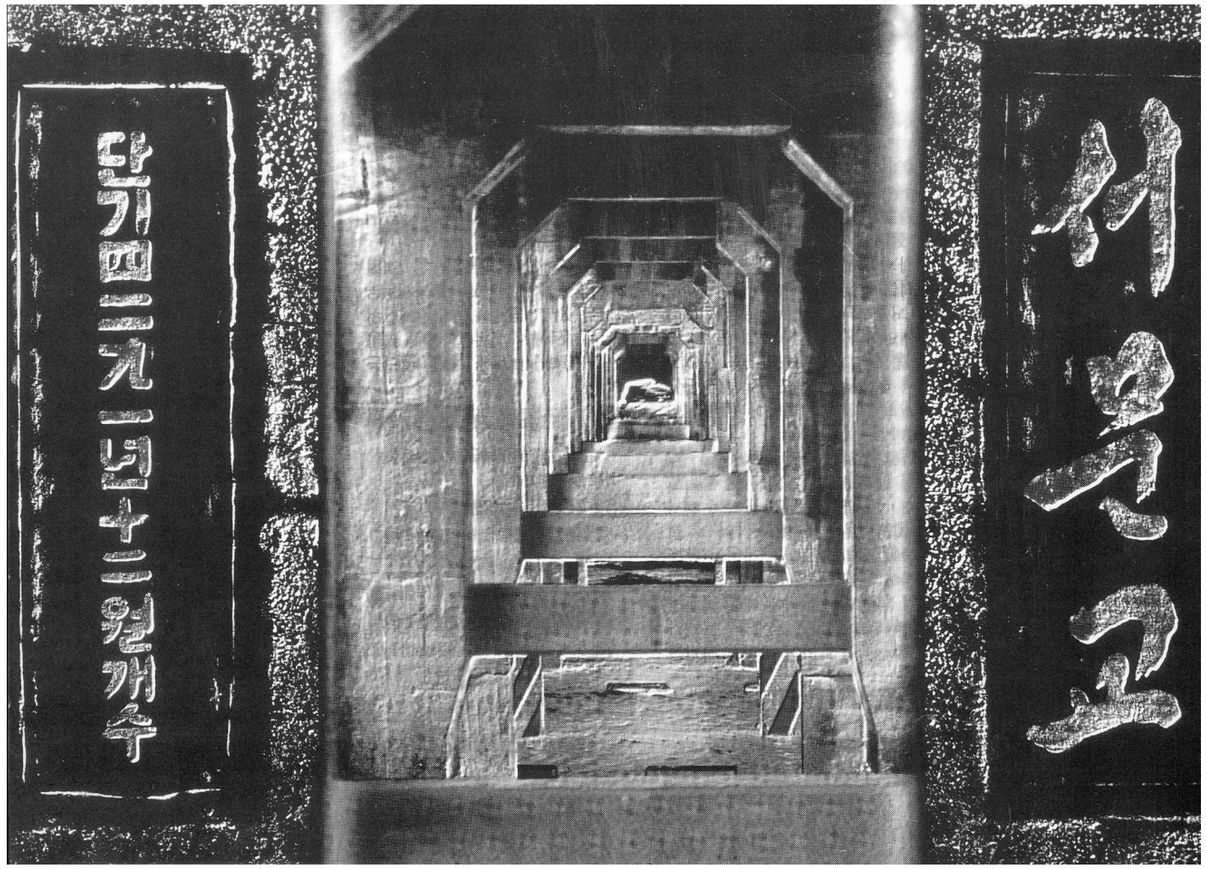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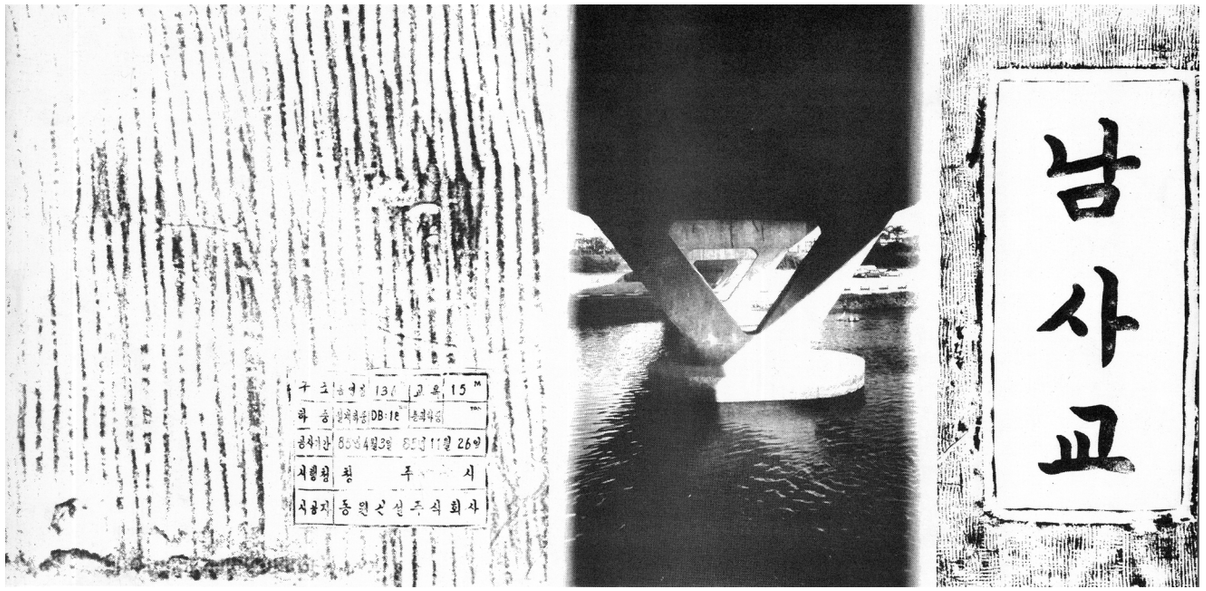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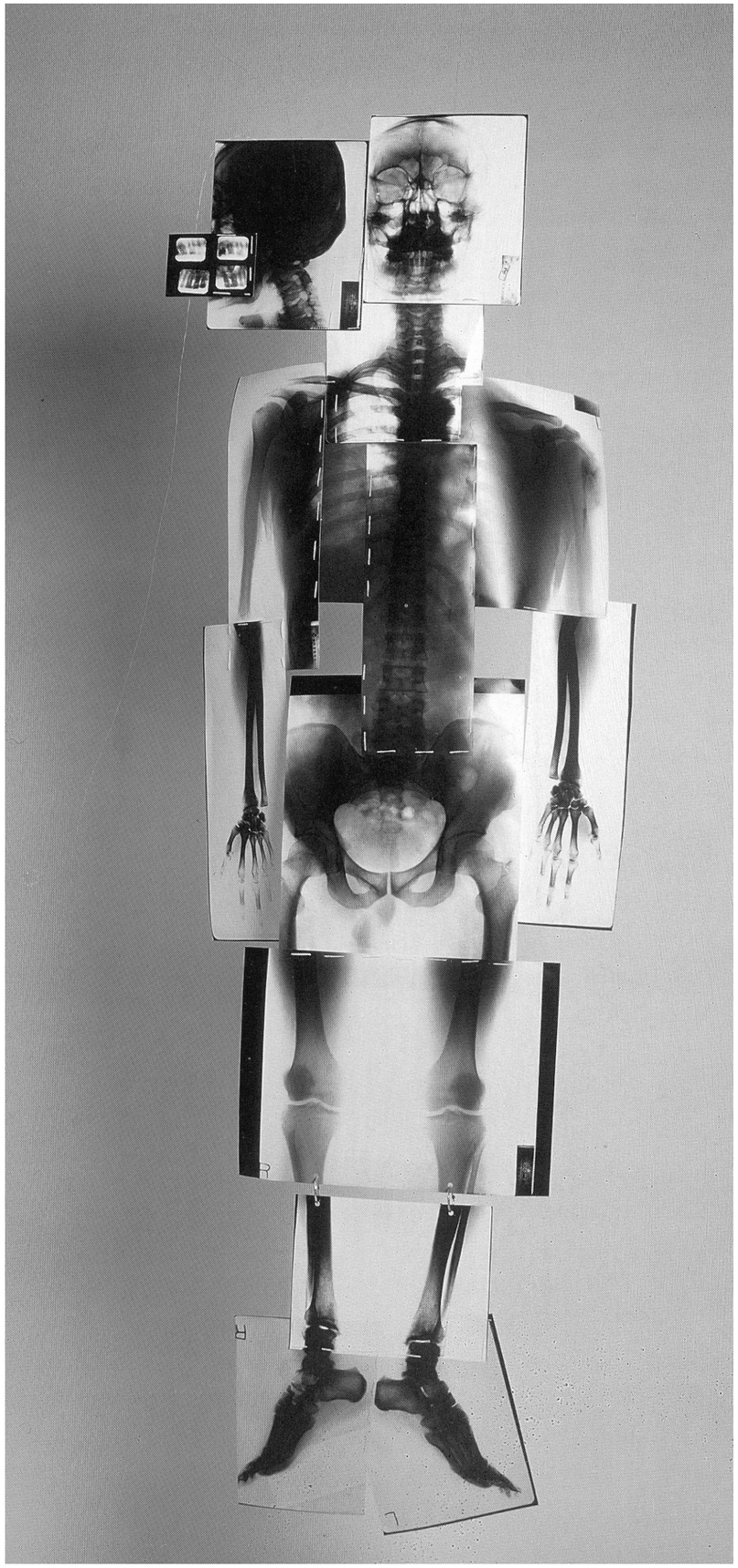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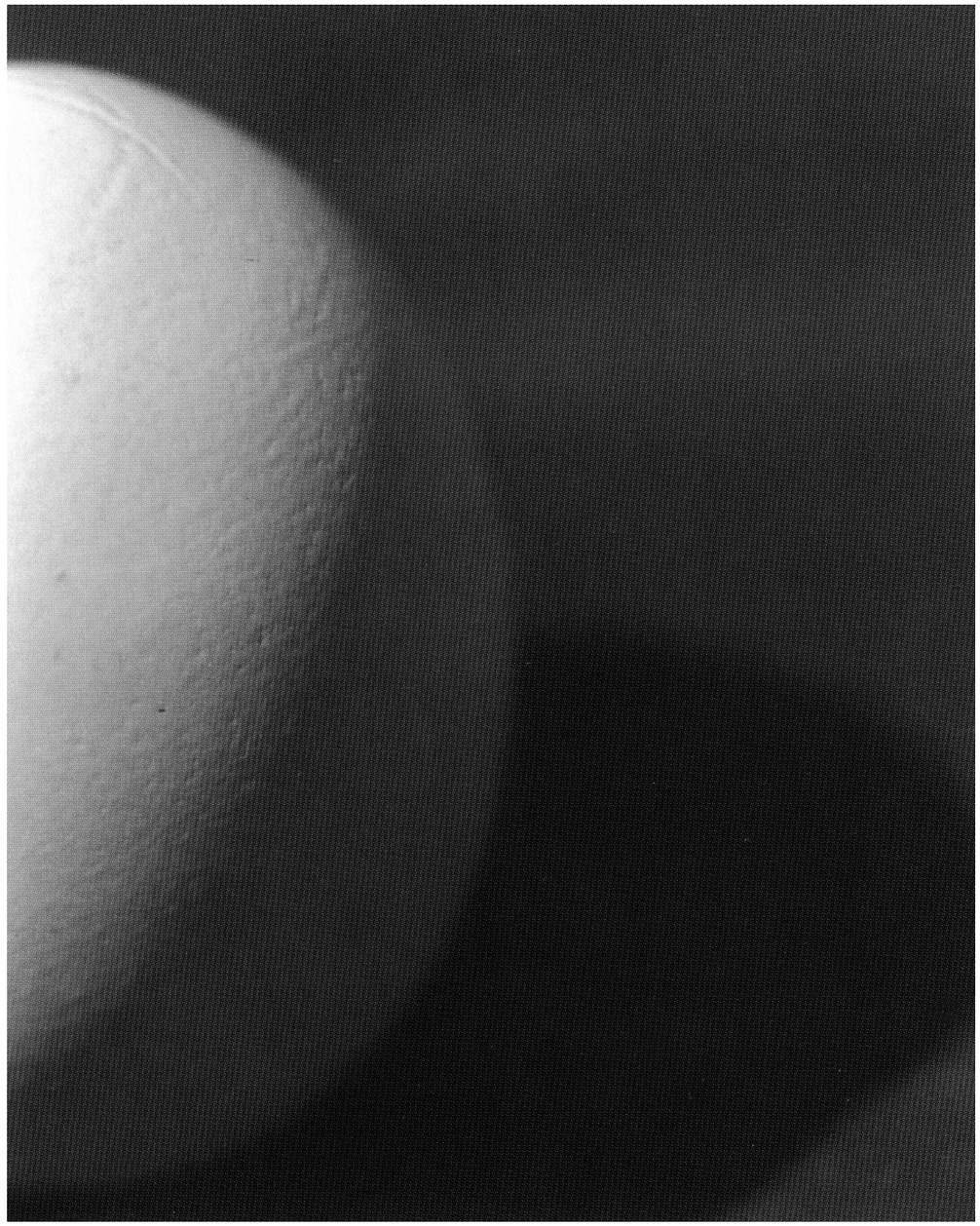

단기四二九一四十二월개수
서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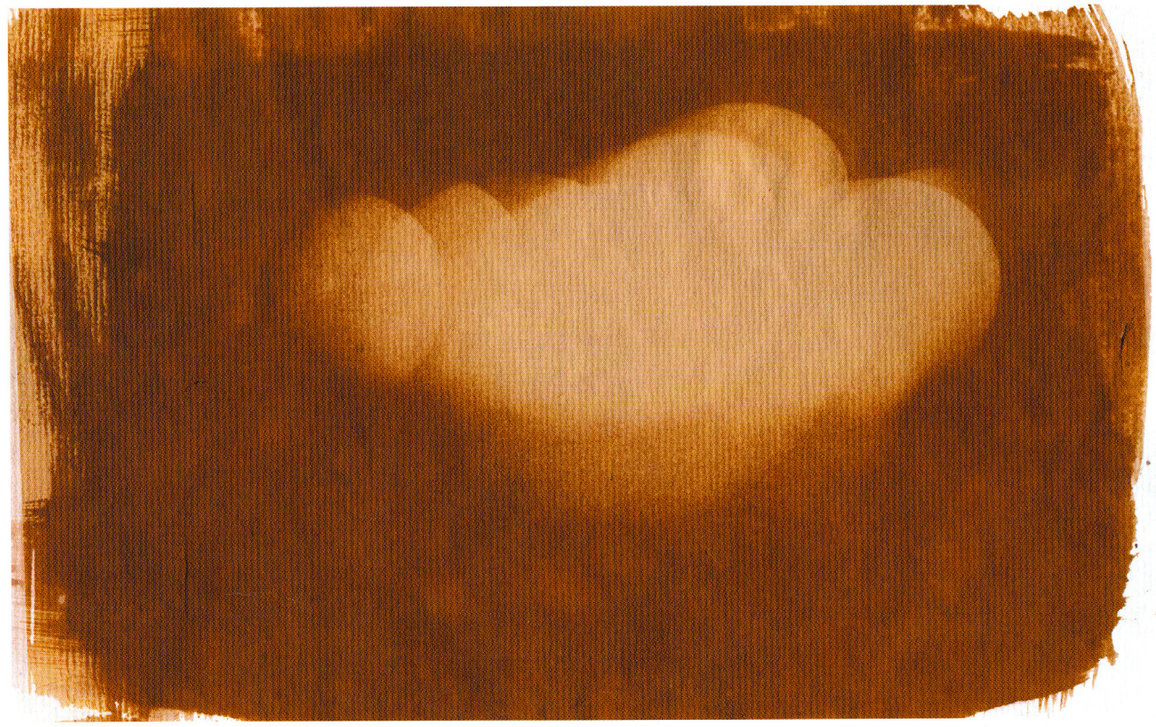

남사교





찍고 찍어서, 밟고 밟어서, 나는 물이다. 한지에 물은 뻔디
뻘려여 더하다 月晃 광스생각—





작가와의 대화

interview

권나희

문상욱

이정호

박광수

황희순

심명희

권나희

조영상 작가의 아내 권나희입니다

조영상 작가가 처음에 저희 집에 전세로 이사왔어요.
우리 신랑이 우리 집에서 세입자로 살았어도 별 관심없이 살았잖아요.
서로 셋방살이하는 사람으로 알고만 살았는데 사진을 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된 거죠.

전기공사 회사를 다녔는데 얼마 안다니다 사진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바로 (일을) 그만뒀어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부터 사진 찍으러 다니기 시작해서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사진을 활동만 하셨어요.

저는 사진학원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숙녀복 옷 장사하는데 거기다가 DP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인화도 해주고 사진도 빼주고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게 하나 옆에다가 현대에 칼라라고 하나 이제 차렸거든요.거기서 인화지에 사진도 빼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거길 차지해가지고 현대 칼라 운영을 혼자 하더라고요. 나는 숙녀복을 하고 한 가게에서 한 쪽만 내줬어요. 한쪽은 현대 칼라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해서 인화하고 필름도 팔고 손님 많이 오더라구요.

거기에 이제 며칠을 이렇게 보더니 이제 자기가 딱 앉아서 손님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이 바뀐거죠. 그래도 꽤 오래 했어요. 몇년 했는데 왜냐하면 사진을 손님이 빼는 것보다 우리 신랑이 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어디가서 사진 한번 찍으면 한 보따리 거든 20통, 50통 이렇게 필름을 가져가면 그걸 다 쓰고와요.

그 사진 자기 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 빼는 것만 해도 다른데 안 맡기니까 혼자 하니까 훨씬 낫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재미있게 혼자 잘했어요. 거기서 숙녀복을 그만하게 됐어요. 그 바람에 현대 칼라도 같이 없어졌죠. 그때부터 대전 동호회 혼자서 사진 찍고 내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무조건 사진 공모전만 있으면 잘 내셔요. 장려상도 받고 1등도 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부부가 나와서 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쫓아가서 저도 상을 받고 같이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나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하니까 관심을 갖고 많이 내서 공로패고 이런 걸 받은 게 많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씩 하는 거라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나중에는 전문적으로 사진 20통 50통씩 찍고 다닐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사진관을 하나 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차려주겠다고..

그러면은 자기 뽑는 것 자기가 다 남는것 아니냐 사진관 차려준다고 몇 년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영업직으로 하면 안된대요. 돈을 알면 안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차리면 안된대요. 끝까지 차릴수가 없이 자기의 취미로 직장 다 그만두고 아주 빠져들었던 거예요. 아주 미치지 않으면 못하죠.

우리 애들이 대학을 어디 갔는지 졸업이 언제인지 초등학교에서 부터 한 번도 따라가보지 못했어요. 입학식이고 졸업식이고 제가 혼자 다녔고 한 번도 따라가보지 못하고 언제가 입학인지 언제가 졸업인지 하나 몰라요. 어느 대학을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늘은 졸업인데?” 내가 그러면 하고 “그래” 그러고 자기 볼일보러 카메라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서 가서 입학이고 졸업이고 제가 챙기고 등록금 하나도 몰라요.

애들 학교 다니는 등록금 10원도 내본 적이 없고 제가 다 해서 아무 잔소리 없이 진짜 내가 생각해 보면 바보같은 짓인지도 모르지만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냥 사는데 마냥 열심히 살았으니까 등록금도 제가 다 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애들이 어릴 때는 아빠가 돈 안벌고 엄마가 하니까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커서는 아빠가 자랑스럽다 자기네들 말로 해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흔하지 않아 우리 아빠 자랑스러워 엄마가 힘은 들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깨가 여기가 아프다 그래요. 목 있는데가 아퍼 그래요. 동네 병원가서 주사를 맞지 그랬더니 알았다고 저는 이제 제 일이 있으니까 같이 못 갔어요. 병원에 갔다가 이제 주사 맞고 오더니 저녁에 더 아파 그래요 왜 더 아파 주사 맞았는데 나아지 그러더니 이상하게 몸이 더 아파 나을줄 알고 기다려봐 나을테니 저녁에 밤을 새고 잠을 안자고 안방 건너방으로 왔다 갔다 해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왜 그러냐? 아파서 못자겠대요

그러면 그 이튿날 병원에 가자고 을지병원 가라고 하고 저는 빨리빨리 병원에 가라 우리 아들보고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는데 을지병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퍽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응급실에서 데리고가고 초음파 검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검사가 주사를 잘못 맞아서 그런거래요. 거기에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프면서도 수술을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주사를 잘못 맞아서 그렇게 됐고 또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완치가 안되서 그때부터 못 일어난거예요. 갑자기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쪽 우리 동네 병원을 우리가 고발을 하자 우리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개인적으로 일반인이 이렇게 고발을 하면 이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고생만하고 돈만 들아가고 하니까 어차피 지나가다 어떻게 되든 자기들 잘못했는 것은 분명히 속에 숨기고 우리가 다 손해 보는 거니까 엄마 그렇게 하지마 아빠 편하게 가시게 그냥 놔두자고 그래서 이제 고발을 안 했어요.

말도 못해서 눈만 뜨고 가서 이게 보니까 말도 못해서 우리 아들 보고

우리 이제 애 아빠는 애들 사랑한다 부인 사랑한다.

이런 말 한 번도 못해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니까 아들보고

아빠 사랑한다고 자꾸 말하라고 쉬지도 않고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계속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말은 들린데요

병원에서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라고,

계속 사랑한다고 아들이 말해줬어요.

회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카메라 없이 못 사시는 분이니

까 이제 저승에 가서도 그걸 사용하시게끔 놔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

얼마나 그게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좋아했어요.

감사하다고 카메라 하나 놔드린거 기억해요.

지금도 잘 찍고 계실 거예요

문상욱

사진을 좋아하고 평생 사진을 하다가 죽고 싶은 문상욱 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운호학원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으니까 82년도에 처음 카메라를 시작한 것 같아요.

사진을 하게 된 동기가 그때 당시에 제가 취미로 분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분재, 난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특히 분재에 대해서 상당히 심취해 있었는데 분재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사서 분재와 바깥에 있는 자연스러운 나무를 찍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서 이제 찍는 법을 배우려고 하다가 사진 쪽에 와 보니까 사진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분재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있어야 1등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에 와보니까 돈 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자기의 감성과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지
결국 돈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갈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호 영상회는 1980년 이때쯤 들어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리고 운호 영상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공모전 사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흑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박상일 선생이 있었어요. 박상일 선생하고 저하고 가까우니까 같이 촬영도 다니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을 때 박 선생은 칼라는 지도를 하고 나는 흑백을 지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박 선생이나 나나 집에 암실을 차려 놓고 흑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흑백에 대한 나름대로의 데이타도 만들게 되고 경험치도 쌓게 되고 그러다가 코닥에서 흑백의 약품들이 좋은 약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코닥에서 약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오긴 했어도 청주까지 또는 우리나라까지는 오지 않아서 화공약품을 파는 데 가서 약품을 사다가 조제를 해서 현상, 인화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품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죠. 그러다가 코닥에서 아주 정밀한 그러한 약품들이 나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코닥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했었고, 그 뒤에 미국의 브룩스 대학에 있는 교수가 와서 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했어요.

그때 그 강의를 4박 5일정도를 들었는데 그때 흑백에 존 시스템이있구나라고 알았고 그러고서 그런 정도가 되니까 내가 이제 강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 혼자 흑백을 어렵게 공부를 해서 흑백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쉽게 또는 접근을 좀 더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주성대학에 흑백 사진 반을 만들어서 강의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주성대학에서 나와서 서원 대학에서도 몇 년 강의를 했고, 그때 박상일 선생은 그때 서원 대학인가? 그때 칼라를 강의를 했었고요.

80년대 중반 이후로 사실 청주에 일반 서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저쪽에 공단이 있어서 큰 회사에서 사진반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쪽에도 사진 동아리에 대해 상당히 많았고 그때(1980년대) 아마 사진 붐이 상당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실버포토에 들어오라는 권유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현대사진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명을 조직을 하는데 반은 사진작가협회에서 반은 사진작가협회가 아닌 다른 분을 하자.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되어서 회원들을 다섯 명 다섯 명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자 그래서 상당히 그때 이 실버라고 하는 말은 사진이 필름이 질산은으로부터 시작이되니까 그 은에서 이야기하는 실버 그래서 사진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버포토라고 사실 이름을 명명을 했고, 그래서 좀 더 현대 사진적으로 우리가 전체 방향을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렇게 전시를 이제 시작을 했죠.

일단 실버포토에 있는 회원들이 이제 단체를 맡거나 또는 강의를 맡거나 이런게 몇 분들이 사실 있었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버포토에 있는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강의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이냐면 사진의 저변을 대단히 넓혀놨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뭘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을 좋아하는 취미로 사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사진에 대한 이해도도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변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수 사진 쪽에 또는 현대의 사진 쪽에 눈을 뜨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청주의 대학에 사진학과가 있었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사진학과가 주성대학에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버포토 회원 중에 한 분이 거기에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그 사진학과가 몇년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 있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현대 사진이나 사진을 좀 더 깊이있게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안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하이퍼 아마추어라는 것보다는 사진의 저변 그리고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생기게 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실버포토 회원들도 하나의 역할을 한 부분을 담당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내가 사진으로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또 현대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늘 있고
그것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것

내 주변에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오랫동안 사진을 하면서
뭔가 사진에 대한 욕구나 이런 걸 사진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그런 과정을 겪고 왔으니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금 다시 강의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어쨌든 나의 바람은 청주가 사진에 대한 저변도 많이 확대가 됐고
또 젊은 친구들도 전공한 친구들이 사실 청주에 많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현대사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정호

지금도 사진 활동하고 있는 사진가 이정호 입니다.

청주상업고등학교를 제가 1975년도에 졸업하면서 주변에서 사진과 진학을 권했었고 제가 신구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를 졸업하게 됐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하고, 사진관에 가서 필름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사진 찍으러 많이 다녔고 그런 것이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가면 제가 거의 사진을 찍어 주고 제 중심적으로 사진활동을 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1975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청주 상고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졸업하고 대학을 사진과로 75년도에 가서 77년 졸업을 한 거죠. 조금 있으면 50년이 되어가는데 2년 후면 카메라 사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 50년이 되어갑니다.

그때 이제 사진과를 가서 중앙대학하고 저의 신구대학하고 두 군데 사진과가 전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과를 당시 충북에서 가신 분이 다른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거의 유일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사진이 좋아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카메라를 놓지 못하고, 카메라와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75년도부터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 졸업하고 가면 동아리는 잘 들어가야 된다. 특히 지역 같은 데는 동아리 잘못 들어가면 그게 사진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동아리에 들어갈 때 신중을 기해서 들어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청주에 졸업하고 와보니까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청주지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입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70년대 후반 이죠.
당시 사진작가협회 청주지부 회원들이 한 10명 남짓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없냐는 모르겠는데 사직동에 거구장이라는 데서 모임을 많이 했고요.

짜장면 집에서 자주 만나고 협회 월례회를 하고, 지금은 돌아가신 전예근씨 같은 경우 그때 제가 스물 몇 살 때 보면은 환갑 넘어셨던 나이인데도 사진찍으로 나와서 일몰을 보면은 기뻐하시고 이런 걸 보고서 저게 그렇게 기쁠까? 황혼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제가 20살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사진이라는 것이 나이가 먹어도 저렇게 동심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거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제가 막내 제가 결혼을 하고 애가 컸는데도 조유성씨 께서는 정호 총각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게 별명처럼 정호 총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모전이 없어서 촬영대회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천 사진 촬영대회를 가지고 금상을 탔어요. 사진촬영에 대회에서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금상 작가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죠.

조영상 작가님은 실질적으로 제가 사진 협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옥천분이 오신거에요. 옥천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사진협회를 들어오고 싶다 오시겠다고 해 가지고 대전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시느냐 했더니

자기는 고향이 충북이라 여기로와야 되겠다는 거에요. 청주로
너무 품성이 좋으신 거에요. 남 얘기도 안 하고, 누구 헐뜻지고 않고
이제 묵묵히 사진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특히나 옥천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대단하시다.

속으로 늘 생각을 많이 했었죠. 우리끼리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는 청주 사진계를 그 당시에 자부심을 갖고 이끌어갈 클럽을 하나 만들어보고 어떻겠느냐 하면서 실버 포토가 태동이 됐죠. 조금 후에 얘기했지만 그래가지고 육거리에 이상규 그 친구가 스튜디오를 조그만하게 냈던거 같아요. 자기 작업실 공간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사진이 그 당시에는 흑백이니까
실버(은)이 안 들어가면 사진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실버라는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태동되게 된 거에요.

실버가 90년도에 창립되어서 91년도를 첫 회원전시를 하게 됐어요.
조영상 작가님이 어쨌든 정말 이해가 안될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사진 대중화를 위한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들은 제가 EV포토를 92년도에 만들어가지고, 93년도에 창립전을 했는데 실버, EV 조금 있다가 1년 후에 조영상선생님이 여자들 중심으로 사진마당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됐고, 거의 사진 작품 동아리로서는 초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에 사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평생교육원에서 사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과목 신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자연적인 태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처음에 청주에 처음 평생교육원이 생긴 데가 주성대학, 그때 주성대학에서 사진강의를 처음 맡은 사람이 박상일씨에요. 박상일씨가 처음 맡은 사진을 한 1- 2년 정도 했나요? 강의를 하다가 여러 여건상 제가 다시 맡아서 주성대학에서 안하고 서원대학에서 강의를 했죠.

서원대학에서 강의를 4-5년 했어요.
거기서 하다가 서원대학에서 안하고 다시 청주대학교로 와가지고
13-15년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진 활동을 여러사람이 많이 하고
취미가 되고 저희들 사진 70년대 할 때는 망원렌즈 가지고 사진찍으러 가면
애들이 막 쫓아다녔어요. 방송국에서에서 나왔는 줄 알고 망원렌즈 직접 찍던 그런 건
그런 시절이었죠.

사진협회도 한국사진작가협회 외에 민족사진작가협회로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게 왜 태동이 되었느냐 하면 한국사진작가협회가 너무 고리타분한 거예요.
나이 드신분들이 돈이 있으면 하는 거고, 사진예술이라는게 카메라만 있고 돈이 있으
면 무조건 작가라고 명칭을 남발하니까 이제 사진과가 대구에도 많이 생겨나고
여기저기 사진과들과 교수들이 많이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주축이 되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사진협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한 것이 민족사진작가협회 그러면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러났죠
그때 그 당시를 시점으로 해서 여기저기 동아리들도 있고 사진뿐만이 아니에요.
각 동아리들이 그때 다 활성화 됐던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계속해 오면서 저는 협회장을 한 것도 아니고 청주 사진을 위해서
앞에서 이끌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진이 좋아서 그래서 진짜 사진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제 관념 속에는 사진은 사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순간을 내가 영상 속에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그 순간에 매료돼서 지금도 하고 있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사진 속에는 그냥 사진이 아닌 사진이 숨을 쉬고 있구나 작가들의 혼과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진이 좋다 나쁘다 이런 사진은 된다 안된다.

그런걸 떠나 사진은 사진 다우면 된다는 생각을
앞으로도 하고 계속 할꺼 같아요.

사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록의 매체인데
기록이 우리가 없으면 역사도 없는 건데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기록매체 특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박광수

저는 사진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 박광수입니다.

1978년도죠. 대학에 동아리에 와서 사진에 눈떴었죠.
처음에 독학이죠. 혼자 책보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흑백을 처음에 배우는 것에 매력을 느꼈었죠. 그 당시에는 흑백이 암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작업실이 아주 대형화 됐던 것도 아니고, 조그만 곳을 임시로 만들어서 쓰는 필름 낚시를 해본 적도 있죠. 어려서 그림 그리는 것을 취미 아닌 취미로 하면서 대학교 가서 전공은 뒷전이고 사진 동아리에서 사진만 했다고 보면되죠.

78년도 입학 했으니까 그때부터 군대 갔다와서 8년 동안 사진만 했어요.
대학 전공은 아주 안하고 사진만 하다가 결국은 더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진학한 것 그런 과정이었죠. 대학 동아리에서 열심히 했고 그 당시 대학미전에 출품해서 대개 상을 받으면 이렇게 우쭐하는 마음도 있고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를 차려서 보광사진연구소라고 혼자 공부를 하며 사진 전문가의 길을 준비 했었죠.

실버포토는 아마 조영상 선생님하고 이정호 선생님이 사진협회는 안 들어있으면서도 자기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섭외를 한 거죠.

각 분야별로 방송국, 신문사
또 혼자 작업하고 있는 친구
대학원 다니는 친구,
카메라 샵하는 친구,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열명이 모이게 됐어요.

이게 80년대 후반인데 그때 창립전을 하기 전에
모임을 해서 각자의 개성을 보니까

10인 10색

이런 정도의 분들인데 다른 단체하고 달리 누가 지도하는게 아니었어요. 각자 자기 작품을 자기가 찍어서 품평회 때 보여주고 그걸 모아가지고 매년 전시를 하는데 전시할 때는 무슨 작품을 가져올지 모를 정도로 자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매년 다섯점씩 출품해서 전시장을 빌려서 했는데 아마 그게 10년 동안 가면서 개인 주제전 말고 전체적인 주제전도 2-3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신세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표현하는 사진
신년도에 들어서 주제전을 주제를 내밀면 그에 대해서 자기 본인이 풀어나가는 거에요. 그렇게 작업을 아마 다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개개인이 다 나름대로 작업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유분방하게
작업했고 전시하는 것도 얽매이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외부에서는 좋아했었던게 실험적인 사진을 많이 했어요.

전시는 청주문화원에서 했었고, 예술의 전당에서 했었고,
그런 전시를 보편적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하는 것도 그게 모든것에 기록에도 남고 박물관에서 전시를 해야지만 외국에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에 대한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박물관에서 전시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시도하는 게 모든 게 새로웠던게 뭐냐면 플래카드 예를 들어도
그 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벽면에 플래카드를 맞추는거죠.

벽면이 4 x 4m면 플래카드를 4x4m로 만들어서 대형화시키고
그거 하나 만든 걸 가지고 매년 쓰는 거예요. 날짜를 쓰지 않고 매년 플래카드를
그것도 조금 특이했던 활동이고 달라보이는것 보다 계속적인 신경 쓰지 않고
나름대로의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각각 회원들끼리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이은정 선생님이 그런 작업을 많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한권이었을 때는 책꽂이에 이렇게 꼽아 놓으면 2-3회가 지나고 나니까 표지 색깔, 책 옆면에 색깔을 넣어서 벽에 꽂으면 달라지는 이런 것도 있고 포맷이 바뀌어가고 가로포멧으로 한 번 한적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단체다 보니까 경비 아닌 경비가 예산이 있어서 그걸 회계를 변형시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려했던 것 같아요.

사진 대학원 나와서 강의하고 있으면서
빵.. 생활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사진을 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잠시 휴면으로 놓고 다음에 생활전선에 나름한거고

아마 나이가 젊었을 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에 와서는 작업을 언제 안했다 이런 것은
저 개인적인 마음에는 없고

늘 접했죠.
사진을

앞으로도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상적인 거에서 일상적인 모습을

매일 매일 기록하는 사진의 근본적인 기록이 중요한 건데

기록하는 모습을 꾸준히 하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사진을 찍는다는 말 뜻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다가 약품을 바르고 인화 작업을 해보는 이런 것도 실험적인 공부도 되고

사진이 어떤 틀, 형상에 맞춰가지고 남들한테 보여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작품 만드는 것에서 꼬멜수도 있고 아니면 뜯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설치미술은 아니면서도 사진이 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런 작업을 좋아할 수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걸 할 계획이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찾지 않고 가까운데서 찾고 싶어하는 거죠

결국은 내 몸에 있는 타액부터 나를 표현하는 것이 첫째가 되고

그것을 사진으로 풀어가는 게 이런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때만 해도 개인전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고

그룹에서 할 때 내 생각을 발표한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진을 꼭 카메라 파인더에서만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그런 작업을 좋아해가지고

원초적인 것 부터 현대적인 작품을 따라가는 것까지 연구하는 거니까

생각이 바뀌어야지

몸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황희순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 겸 사진가 황희순입니다.

제가 처음 사진 활동한 것은 90년대 초반이었고요. 처음에 이제 사진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카메라를 사업상 구입을 했는데 그 카메라 작동하는 법을 몰랐어요.

니콘 F4를 사가지고 그 기능을 공부하려고 처음에 사진을 입문하게 됐습니다.
사진마당(지도 조영상)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사진마당 초창기에 회원 오혜숙씨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 사진을 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사진마당 회원으로 꼭 입회를 시켜야 되겠다. 오혜숙씨 덕분에 제가 사진마당으로 들어가게 된 동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활동했던 데는 평일날 사진 촬영을 했던 게 아니고 주말만 하는 곳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직업이 주부이다 보니까 주말에 주부로서 (활동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진촬영을 나갔는데 조영상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사진마당은 그래도 주말에 안가고 평일날 가시고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진에 대한 열정이 강하신 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입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진에 목적을 위해서는 새벽에 아니면 열두시에 출발해서 새벽 보통 세시 네시에 가서 한시간 동안 차에서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 하루 종일 찍고 만 24시간 이상을 오로지 사진작업을 위에서 촬영하는데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시냐면 식사도 그냥 차 안에서 간단하게 먹어야 되고
식사도 때보다는 일단은 사진이 우선 먼저였기 때문에 밥도 차에서 몰래 먹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고,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고 식사도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검소하셔서
그때 단가로 거의 기사식당 이런데 가고
그리고 5천원이상 식대가 나오는 데는 선생님이 드시지를 않으려고
뭐든지 아껴가지고 오로지 사진에만 이렇게 몰두하게끔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았던 건
어떤 그런 테크닉적인 것 그런 거 보다는
지금 제가 현재 사진을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서는
굉장히 사진에 대한 몰두
사진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은 선생님한테 몸에 익히도록 배워서
지금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었던 게 그 시절이었던 거죠.
선생님하고 함께하셨던 시절 그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진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제가 걸어다닐 수 있는 한
카메라를 매고서 매일 저를 찾을 것 같아요.

심명희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가 심명희입니다.

저는 실버포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 당시에 실버포토하시는 작가님들은
청주 사진계를 리드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셔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시회에 가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영감도 많이 받고
저도 나름대로 사진의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조영상 선생님이 이끄시는 사진마당에서도 활동하구요.
문상욱 선생님이 이끄시는 Zone 5 흑백사진 연구회 거기서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사진마당 활동 그리고 Zone 5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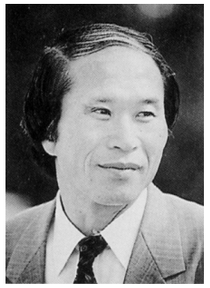
사진이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사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
는지 사진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영역도 다양하잖아요.

사진이 어떤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면을
알려주고 그런 걸 느끼고 그런 것에 입각해서
전시를 하고 작품을 활동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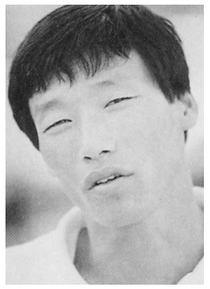
Zone 5에서는 주제전을 했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룹전을 할 때 어떤 주제를 주면
거기에 입각해서 개인적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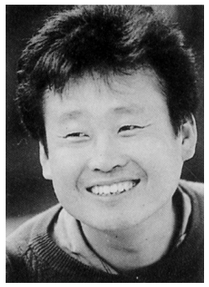
물론 제가 좋아하는 주제도 있지만
이제 공통적인 그런 주제로
그걸 어떻게 펼쳐나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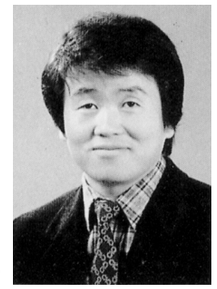

조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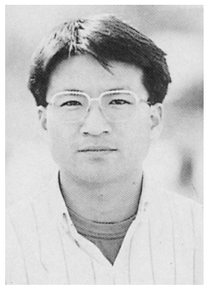

문상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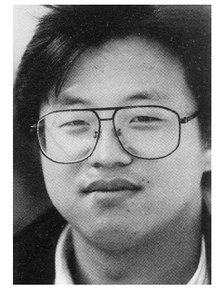

이정호


박광수

SILVER PHOTO
실버포토
EXHIBITION


박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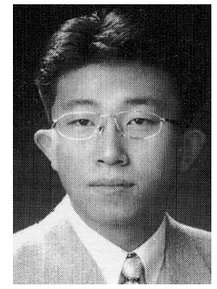

이상규


김용수


이은정


김정규


장일남


최승원

SILVER PHOTO EXHIBITION

사진충북
프로젝트
작업후기

사진가
심명희

23년 3월, 사진 충북의 멤버들이 모여 사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다. 기록사진. 작품사진, 수많은 그룹전과 개인전 등 사진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했지만 이번에는 개인적인 의지를 넘어서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좀 더 뜻 깊은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마음이 모아졌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희미해져 가는 청주 사진의 역사를 조명해보기로 하였다.

청주 사진의 역사는 너무 멀리 가지 않고 1990년대부터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를 대변할 사진가를 찾기 위하여 우리의 관점을 정비하였다. 열심히 활동하여 청주 사진사를 스스로 쓰고 있기 보다는 1990년대에는 열심히 활동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활동을 멈추고 잊혀지는 지점에 있는 사진가들에 주목하기로 하였다. Hidden Photographers 라는 개념을 떠올리며 그들을 통하여 청주 사진사의 외연을 확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해 1990년대를 대변할 사진가로 이정호. 정광의. 박광수 사진가를 선정하였다. 그들을 역사의 양지바른 빛으로 안내하여 희미해져가는 1990년대 청주 사진 역사의 씨줄 날줄을 되살려 보자는 생각이었다. 세분 사진가들을 만나기 전에 권영오 사진가를 만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으나 그는 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양하였다. 권영오 사진가는 독학으로 사진을 배우고 산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였다. 2000년대 이후 은행가로서 은퇴한 후에 문의에 정착, 자택 2층에 "산하" 라는 스튜디오 겸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운영하며 포토샵도 독학으로 익히고 프린터를 설치, 대형 프린트도 직접 하였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정호. 정광의. 박광수 세 사진가들과는 그들의 삶과 사진에 대하여 얘기 나누고 정식 인터뷰 촬영을 하였다. 가을의 프로젝트 발표 시에는 인터뷰 영상과 작품 전시를 같이 하기로 하였다. 이정호 사진가는 "청주향교" 를, 정광의 사진가는 "우암산" 을 촬영하여 2인전 형식으로 발표하고 박광수 사진가는 본인의 이야기로 개인전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세분 사진가들과 인터뷰하면서 자연적으로 199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Silver Photo의 얘기가 나오면서 Silver Photo와 Silver Photo 멤버이며 고인이 되신 조영상 사진가도 같이 조명하기로 하였다. Silver Photo는 그 당시 청주 사진계의 리더들이 모여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작품들을 발표했던 사진 모임이다. 그리고 고 조영상 사진가는 Silver Photo 멤버로 활동하면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청주지부 지부장을 2회 연임하며 사진인을 증가시키고 청주 사진의 중흥에 공헌한 바가 크다. 고 조영상 사진가의 사모님 권나희 여사의 인터뷰와 Silver Photo의 멤버로서 현재 활발하 활동하고 있는 문상욱 사진가의 인터뷰 촬영도 하였다.

작업을 마무리하고 전시를 앞 둔 즈음, 개인 작업에 매진하던 사진가로서 팀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서로 의논해가며 프로젝트를 조금씩 구체화 시켜 나가던 과정도 흥미로웠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관점에 동의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후대의 누군가가 청주 사진의 역사를 재정비 하려고 할 때 참고 될 수 있는 사료 하나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기초 자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청주 사진사는 다양한 물줄기를 품은 크고 뚜렷한 역사의 흐름으로 각인될 것이다.



2023년 4월 11일 권영오 작가 작업실 방문



2023년 7월 7일 박광수 작가 작업실 방문



2023년 4월 24일 이정호 작가 만남



2023년 6월 29일 정광의 작가 만남



2023년 7월 28일 정인영 작가 만남



2023년 9월 2일 조영상 작가 자택 방문











2023년 9월13일 인터뷰 촬영

1990-
2003

실버포토

발행일 2023년 10월

기획 이재복

연구위원 황희순

심명희

이경순

참여작가 조영상

문상욱

이정호

박광수

주최 주관 사진충북

* 사진충북은 작가 중심의 "충북사진사"를 연구하기 위한 단체로 2023년 창립되었습니다.